



주님의 앞뜰에서 보는 신화

神話

[압구정 1동 성당 10년사 화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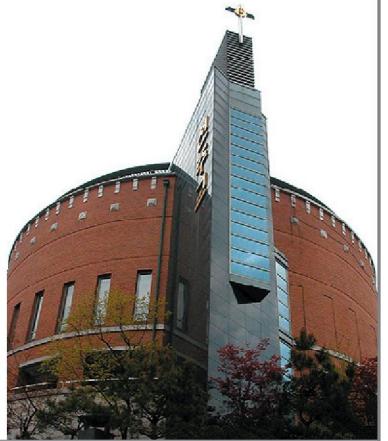


주님의
뜰에서
알고보는 신화

神話







압구정1동 성당 10년사 화보집

Apgujeong1-dong Catholic Church
10th Anniversary Photo Alb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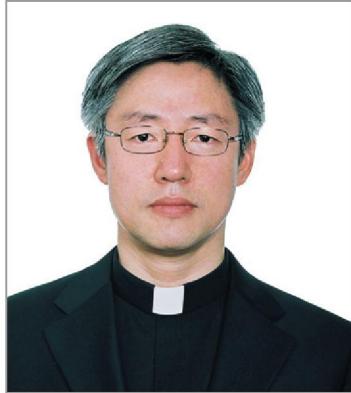




압구정1동 성당 10년사 화보집을 주님께 바칩니다.

압구정1동 성당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거룩한 성령,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참 좋은 교우들...
이 모든 은총의 결과물을 엮어 화보집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제 더 크게 만들어 갈 10년을 향한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이 소중한 기록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시편 133,1)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에 압구정 1동 본당이 있기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총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당 설립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현실을 지혜롭고 성숙한 믿음으로 잘 견디어 주고 지켜나가신 모든 신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축하를 나누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3대 주임신부로 부임한 지난해가 본당 설립 10주년이 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십 년이란 시간은 그리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들이 모인 우리 본당 공동체의 경우는 분명 다르다는 생각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신자들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이 모여 지금의 공동체가 세워지기까지, 거기에는 나누고 싶고 나누어야 할 이야기들과 역사가 담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필히 역사란 때가 되면 기록되고 정리될 필요가 있는 법입니다. 믿음의 역사도 그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체험과 과정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기록하였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과 믿음의 전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아온 믿음과 삶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이 화보집을 만들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이런 작은 노력과 정성이 모아지다 보면 먼 훗날 세대들은 우리 시절에 삶과 믿음을 되돌아 볼 것입니다.



언젠가는 낡고 버려진 사진첩으로 남을지 몰라도 그 사진 속에 담긴 단 한 장의 기록은 수 백, 수 천 마디의 이야기보다 더 생생한 우리 삶을 증거 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화보집을 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단순히 기념사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우리의 염원이 담긴 것입니다. 이 한 권의 화보집으로 지나 온 십년의 발자취를 담기에는 약간의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한 뜻은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친교 안에서 기쁨을 나누며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는 공동체,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충만히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의 이 아름다운 화보집이 완성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문화홍보분과 위원장을 비롯한 편집 위원들과 사목회 여러분 모두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압구정1동 본당 교우 여러분과 가정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압구정1동 성당 주임신부
박상수 (바오로)



압구정1동 본당 10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친애하는 압구정1동 본당 교형 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크신 은혜와 성모님의 보살피심으로 압구정1동 본당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본당 10년사를 발간하게 된 기쁨을 본당의 모든 교형자매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느님의 은총과 주님의 평화가 각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성전이 준비되지 않아 다른 빌딩을 빌려 시작한 공동체가 많이 변모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보살핌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생각하면서 좋으신 하느님께 우리 모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여 10주년을 맞는 압구정1동 본당 공동체도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삶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전적으로 투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친교와 희생과 일치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기쁘게 사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지난 10년 동안 압구정1동 본당 공동체를 준비시켰고 키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과거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신 예수님께서는 현재도 우리들을 파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끝까지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도들처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새로 태어나게 하고, 쉬고 있는 교우들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게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나간 1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지역 공동체에 더욱 깊이 뿌리박고 복음 전파의 소명을 잘 수행해 나가는 압구정1동 본당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압구정1동 본당 1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본당과 교우들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추기경 정진석 (니콜라오)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 찬미 예수님

먼저 “압구정1동 성당 10년사 화보집”이 그 동안 힘겹게 자료를 수집하고 힘든 노력 끝에 드디어 출간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힘써 오신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들의 역사와 전통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데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내는 둘째 서간에서 데살로니카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곧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가톨릭교회도 성서뿐만 아니고 교회의 전통도 교의의 중요부분으로 삼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모으고 이를 유지, 보존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있다 할 것 입니다.

우리 압구정1동 성당은 1999년 3월 설립되어 어언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간에 쌓인 역사를 수집, 유지, 보존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10년사 화보집의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은 다만 우리 성당의 발전과 성장한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역사와 삶의 애환이 담긴 역사라고도 할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두꺼운 인생의 여정(旅程)을 지나면서 그 여정이 한 껏풀 한 껏풀씩 우리들 자신을 떠나 하나의 아련한 추억으로 남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추억이 이렇게 여기에 결실로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10년의 역사와 전통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의 밑바탕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미래의 역사와 전통을 가꾸는 초석이 되고 역사를 기록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통에 관한 논쟁에서 (마태오복음 15장)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는 나쁜 전통에 대하여 호되게 나무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시기 전 마지막 고별기도에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믿는 이들을 위하여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부드러우면서 활기찬 아름다운 전통을 쌓아가고 역사를 기록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책자의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편찬위원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자신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지나온 신앙의 역사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더욱 성숙된 신앙생활을 다짐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빌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교회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을 사랑합시다.

압구정1동 성당 사목협의회 회장
박준용 (토마스)





[본당 입구에 있는 성모자상 : 최봉자 (레지나) 수녀님 작품]



천주교 압구정1동 성당은...

천주교 압구정1동 성당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07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압구정 성당에서 분리되어 1999년 2월 18일 설립되었다. (서울대교구 교구장 공문 No. 99-9)
설립 당시 본당 명칭은 압구정2동 성당이었으나, 2001년 9월 21일 압구정1동 성당으로 변경되었다.
(서울대교구 교구장 공문 No. 사무 01-58-177). 주보는 '주님승천'이며, 첫 본당 건물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90번지에 위치한 ICL (베스콘) 빌딩의 5/6층을 사용하였다.

초대 주임으로는 소원석 (가브리엘) 신부님이 가회동 본당에서 오시어 1999년 3월 2일 임명되었다.
1999년 3월 7일 본당 창립 첫 미사를 봉헌하였으며 (250명봉헌), 2000년 3월 5일 본당 창립 1주년 기념미사를 드렸다.
같은 날 그 동안 준비해오던 새 성전 건립이 본격화 되어 성전 부지 매입 (230평, 매입가 28억원)을 하게 된다.
그리고 2001년 2월 19일 착공을 거쳐 2001년 10월 21일 현 본당 부지터에서 새 성전 상량 감사미사를 봉헌 하였으며, 본당 설립과 함께 준비한 성전 건립은 약 15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02년 5월 26일 드디어 새 성전 입당 미사를 봉헌하였다.
2004년 5월 23일에는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님을 모시고 성전 봉헌 미사를 드렸다.

2004년 9월에는 소원석 (가브리엘) 신부님이 이임하시고 제2대 주임으로 정병조 (베드로) 신부님이 부임하셨으며, 같은 해 11월 본당 첫 보좌신부님으로 한정수 (베드로) 신부님이 부임하셨다. 2006년 2월에는 본당에 수녀님이 처음으로 오게 되는데, 조카롤리나 수녀님과 한노아 수녀님이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서 파견되셨다. 11월에는 한정수 (베드로) 신부님 후임으로 남상근 (라파엘) 신부님이 오셨으며, 2007년 11월 신현우 (안토니오) 신부님이 남상근 (라파엘) 신부님에 이어 부임하셨다.
2009년 2월에는 정병조 (베드로) 신부님이 이임하시고 현 주임신부님이신 박상수 (바오로) 신부님께서 부임하셨으며, 12월에는 현 보좌신부 손경락 (사도요한) 신부님께서 오시어 현재까지 사목활동을 하고 계신다.

기구 및 단체현황을 보면, 사목협의회는 2000년 4월 23일 창립되어 초대회장으로 소병희 (요셉) 형제가 임명되어 약 5년간 봉사하셨으며, 임학언 (바오로) 형제, 서종문 (토마스) 형제, 이경표 (다비드) 형제에 이어 현재는 박준용 (토마스) 형제가 총회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다. 산하 1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그 외 꾸리아, 성소후원회, M.E, 전례단, 선종봉사회, 성가대, 선목회, 모니카회, 청년연합회 등 여러 신심 단체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 6구역 54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우 수는 총 1,639세대에 걸쳐 4,110명이다.

2009년 본당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였다.

Contents

[발 간 사]	박상수 (바오로) 주임신부
[축 사]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인 사 말]	박준용 (토마스) 사목협의회 회장



본당 개요 15

제1기 (창립기) [분당 및 본당 설립] 1999. 02. 18 ~ 2002. 05. 25

1999년 본당 설립 및 단체 창립 시기	20
2000년 본당 설립 1주년 미사 봉헌 및 새 성전 부지 매입 시기	40
2001년 새 성전 착공/상량 감사 미사 봉헌 및 본당 명칭 변경 시기	54

제2기 (발전기) [새 성전 입당 및 성전 봉헌] 2002. 05. 26 ~ 2004. 05. 23

2002년 새 성전 입당 시기	76
2003년 지역 방범 봉사 엠마오 발대 시기	96
2004년 새 성전 봉헌 시기	118

제3기 (확산기) [성전 봉헌 이후 ~ 본당 설립 10주년] 2004. 05. 24 ~ 현재

04~05년 제2대 정병조 (베드로) 주임신부님 부임 시기	132
2006년 본당 첫 수녀님 부임 시기	156
2007년 200인 봉헌 운동 전개 시기	174
2008년 본당 10주년 준비 시기	188
2009년 제3대 박상수 (바오로) 주임신부님 부임 및 본당 설립 10주년 시기	202

부 록

본당 연혁 / 역대 신부님 및 수녀님 / 관할 행정 구역 인구 및 신자수 / 신자 현황 /
신자증·감 현황 / 건물 현황 / 단체 및 모임 현황 / 꾸리아 및 레지오 현황 /
본당 사목 계획 / 사목협의회 구성 / 역대 사목협의회 회장 및 재임 기간 /
본당 구역별 해당 주소지



제1기 (창립기) _ [분당 및 본당 설립]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창세기 12,1)



1999 02 18 ~ 2002 05 25





본당 설립 및 단체 창립 시기

1999

"힘을 내어라, 그리고 일을 시작하여라.

내가 너희 곁에 있어주리라"

(하깨 2,4)

Foundation

“

1999년 2월 18일,

압구정 성당에서 분리되어 압구정 2동 성당이 설립되고,
본당 내 각 단체들이 창설되기 시작하였다.

”

1999년 2월 18일, 교구장님의 사목지침인 본당공동체의 소형화 일환으로 압구정 본당 공동체가 설립된 지 20년 만에 분할되어 압구정2동 성당이 탄생한다 (서울대교구 교구장 공문 No. 99-9). 이는 당시 3,000명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지역 중심의 소공동체 설립을 하도록 했던 교구의 지시 사항에 의해서였다. 이에 따라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지역과 신사동을 중심으로 거주하던 교우들은 압구정2동 성당으로 교적을 옮기게 되었고, 강남구 신사동 590번지에 위치한 ICL (베스콘) 빌딩의 5/6층을 전세 계약하여 첫 본당 건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3월 5일 첫 주임으로 가회동 본당에서 오신 소원석 (가브리엘) 신부님이 부임하셨다.

본당 설립 당시 총 신자수는 3,056명이었으며, 총 6구역 54반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구역 및 반 분할 구성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7구역은 구역 외)

3월 7일에는 교우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시 교중미사로 첫 미사를 봉헌하게 된다.

이후 각 단체들이 창설되기 시작하였는데, 3월에는 나오스 성가대가 창단되었고, 4월에는 관할 구역과 반 조정 및 구역장, 반장 등이 임명되었다. 6월에는 순교자의 모후 꾸리아가 창설되었고, 11월에는 전례단이 창단되었다.

Besco

천주교 압구정2동

강남구 제7호
공영주차장
PARKING



biosso



- ▶ 02월 18일 : 압구정 성당에서 분리되어, 압구정2동 성당으로 분당
 - 서울대교구 교구장 공문 No. 99-9. 총 신자수; 3,056명
 - 강남구 신사동 590번지 베스콘 연구소 B/D (ICL빌딩) 5/6층
- ▶ 03월 05일 : 초대주임 소원석 (가브리엘) 신부님 부임
- ▶ 03월 07일 : 창립 미사 (250명 봉헌)
- ▶ 03월 24일 : 성인 성가대 '나오스' 창단
- ▶ 04월 15일 : 관할 구역/반 조정 및 구역장, 반장 임명
 - 남성총구역장 (황성철 요한), 여성총구역장 (이향복 수산나)
- ▶ 05월 29일 : 제1회 성모의 밤 행사
- ▶ 06월 20일 : 순교자의 모후 꾸리아 창단 (여성 Pr. 8팀, 남성 Pr. 1팀, 청년 Pr. 1팀)
- ▶ 10월 06일 : 성서못자리 1권 개강
- ▶ 10월 08일 : 레지오 마리애 여성 단원 일일 피정 (58명 참석)
- ▶ 11월 29일 : 미사 전례단 창단 (단장; 박필섭 파스칼)

본당 첫 건물이 위치해 있던 강남구 신사동 590번지 ICL빌딩 (베스콘 빌딩) 당시 모습



1999년 3월, 힘찬 날개 짓을 시작하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뜻을 순명하였기에 큰 민족을 이루었고,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 만민의 조상이 되셨다.

1999년 서울대교구의 방침에 따라 압구정 성당에서 분당을 하게 될 즈음...
희망과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압구정 성당 교우들 중 분당 사실을 아는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았다.
그리고 분당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교우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 결과, 신설 본당인 압구정2동 성당으로의 교적이동 대상은 약 900여 세대였는데,
새 본당에 미사 참례를 하러 온 교우수는 교적 이동자 중 채 30%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약 300세대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으며, 압구정 성당으로 계속 미사 참례를
하러 가는 교우들도 약 2/3 정도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 본당으로 꼭 오고 싶은 교우들은 주저없이 모였기 때문에
마음을 맞추어 즐겁게 지내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다.

이렇게 초대 주임 소원석 (가브리엘) 신부님과 교우들은 작은 신설 본당에서 오붓하게 모였지만,
마음 속엔 아주 큰 꿈을 안고 힘찬 날개 짓을 시작하였다.

작은 시작...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 속엔 아주 큰 꿈이 꿈틀대고 있었다.





창립 미사

1999년 3월 7일 본당 창립 미사 (11시 교종 미사로 250명 봉헌)

사진에서 보듯이 좌석은 앞에서 몇 줄밖에 있지 않았으며, 좌석에 앉지 못한 교우들은 선 상태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당 초기 우리 본당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소원석 신부님

부임

소원석 (가브리엘) 신부님 부임 인사 (1999. 03. 07)

소원석 신부님은 가회동 본당 주임 임기를 마치고 1999년 3월 5일 우리 본당으로 부임하셨다.
사진은 3월 7일 창립 미사 후 교우들에게 첫 인사를 하기 위해 제대 앞으로 입장하시는 모습.



"신부님, 다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1999년 3월 4일 목요일. 소원석 신부님은 전임지인 가회동 성당으로 모시려 온 압구정 성당 교우 두 분으로부터 '신부님 다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혼자 차에서 내려 ICL 빌딩 5층으로 올라가셨다. 그것이 압구정1동 성당과의 첫 만남이 된 셈이다.

당시 신부님이 성당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가장 먼저 성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5층에 막상 올라 가보니 아무런 집기 비품도 없어 미사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3일 앞으로 다가온 첫 미사를 생각하니 정말 당황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일요일에 미사를 어떻게 드리나..."라는 생각으로 걱정이 가득할 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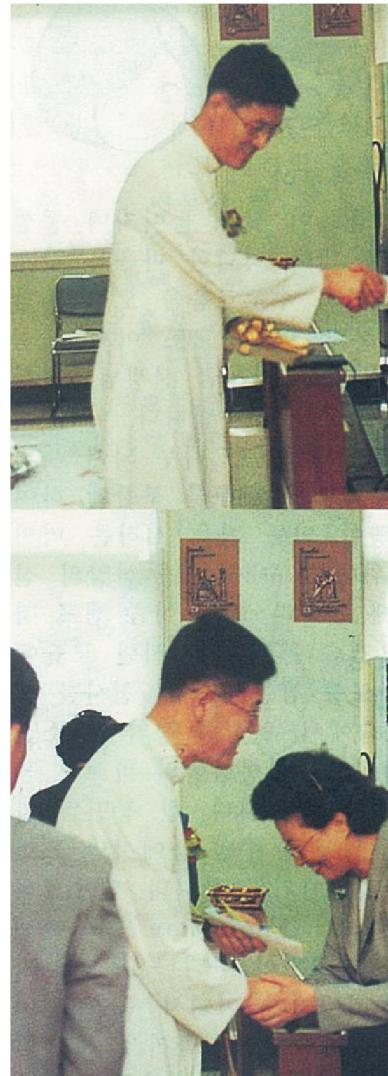
당연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첫 미사 준비였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기야 가회동 성당을 공사했던 텀을 불러 무슨 일이 있더라도 빨리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하여 토요일 새벽에야 겨우 마칠 수 있었다.

전달 받은 집기 비품은 압구정 성당이 현대종합상가 시절 사용하던 제대와 촛대 두 개, 그리고 나무의자 몇 개뿐이었으며, 접이식 의자 약 80개를 급하게 구입하였다. 또한 미사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앰프는 토요일 새벽에 시내에 나가서 구입하였고, 기도서와 성가책을 꽂을 수 있는 의자 커버는 이희모 (요셉) 형제가 청계천 상가에서 급하게 구하여 해결하는 지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준비된 창립 미사 당일에는 의자가 충분하지 않아 일부 교우들만 앉을 수 있었으며, 나머지 교우들은 모두 서서 미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신부님 숙소도 문제였다. 사제관인 신성아파트는 전세 기일이 두 달 정도 남아있어 부임 첫날에는 ICL 빌딩에서 혼자 주무셨으며, 이후 2개월동안 역삼동 성당에서 숙박하며 ICL 빌딩으로 출퇴근하였다. 그리고 일요일은 은행이 쉬는 관계로 입금을 할 수가 없어 봉현금을 가지고 역삼동 성당의 숙소 방으로 가져가서 베개 삼아 잠을 청하였다.

* 이렇게 교우들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소신부님은 힘들었다는 생각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다는 후일담을 말씀하셨다.



본 내용은 10년사 화보집 편찬을 위해 본당 초대 주임
소원석 (가브리엘) 신부님과의 인터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소신부님 영명축일 축하연 모습 (2000. 09. 24)]



【ICL 빌딩 성전 내부 모습 (2002년 촬영)】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01_ 제대 전경 07_ 교리실 입구
02_ 감실 08_ 교리실 입구
03_ 성전 09_ 사무실
04_ 성전 10_ 고해대
05_ 성전 11_ 만남의 방
06_ 나눔의 장소 12_ 만남의 방



이희모 (요셉) 형제님과 심해순 (마리아) 자매님 (왼쪽에서 세 번째)은 본당 설립 초기부터 새 성전에 입당하기 전까지 만 3년 동안 교우들에게 맛있는 국수를 대접하였다.

저희 집은 국수잔치를 하면서 교우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교제의 장소가 되었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나눔의 터전이 되어 갔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기에 선교의 장도 되었습니다.

국수잔치를 3년 동안 하면서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려 올 때면 내가 왜 곶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했었지만 그때마다 친구의 시기하는 눈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았던가?'하는 생각에 잠시 제 자신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자녀들이 하나 둘씩 영세를 받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성가정을 꾸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두들 영세를 받게 되었고, 3년 동안의 국수 나눔은 성당을 이전해 감과 동시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 주일 점심에 준비하던 국수잔치를 끝내며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하늘새땅 2004년 2월호 기사 중 발췌)



국수잔치

“

저희 집은 국수잔치를 하면서
교우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교제의 장소**가 되었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나눔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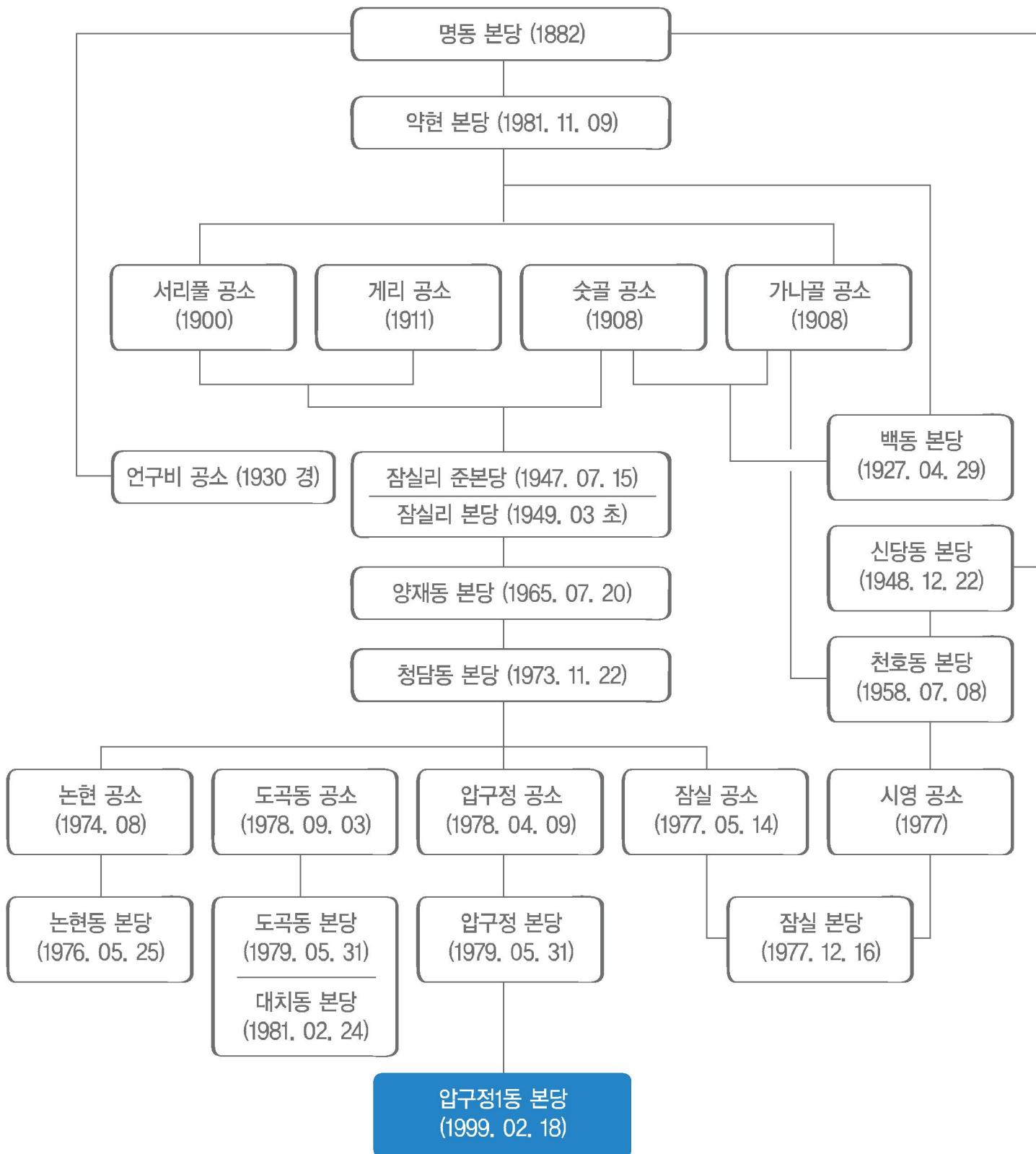
”

[일본에서 수녀님이 오셨을 때의 국수 잔치 후 담소하는 모습]



[교우들이 이희모 (요셉) 형제 집에 모여 국수잔치를 하는 모습]

[압구정1동 성당 분할도]



* 본 도표는 역삼동 성당 20년사에 실려있는 내용을 참고하였음

1999. 3. 14.

전주교 암구정 2동 성당

첨간호

강남구 신사동 590번지 버스온 연구소 B/D 층 515-6844 FAX 515-6845 주 515-6846
주원신부: 소원석(가브리엘)

전례 안내			
주일미사	평일미사	고해성사	예비자 교리
토 오후 4시(어린이) 일 오전 9시(학 생) 오전 11시(교종미사) 오후 6시(청 낸)	화 오후 6시 30분 수 오전 9시 30분 목,금 오후 5시 30분	평일 미사 후	추후 안내

* 봉성체: 매월 첫째 수요일 * 유아 세례: 홀수 달 첫째 토요일

■ 축하드립니다 ■
암구정 2동 성당 본당 창립(1999년 3월 7일)

이달의 말씀: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마태 18:20)

■ 본당 분할 기금 재정 현황(3월5일 현재)
교구 별첨에 따른 본당 분할 후 암구정동 본당에서 일
구정 2동 본당으로 인계된 재정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내 역	금 액	비 고
건물 임대비	630,000,000	계약기간: 1999.3.1 ~ 2001.2.29
건물 관리비	2,211,440	진기, 수도, 가스 실사용비

※ 건물관리비는 3월부터 매월 본당에서 베스온 연구소
측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디딤돌

<만 날>

인간은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출발 자체가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모태에
서의 어머니와의 만남, 출생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만
남, 그리고 살아가는 만남 속에서 행복과 불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
니다. 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을 잘 만나서 일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
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
다. 서로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
시다.

■ 교무금 및 본당 건립 기금 납부 안내

본당 사무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교무금 및 본
당 건립 기금을 수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 교무금 및
본당 건립 기금은 본당 사무실이 정리된 후 수납하도록 하
겠습니다. 교우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미사 봉헌 안내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교우님께서는 당분간 준비된
미사 예배 봉부를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한 후 본당 신부
에게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안내

- 초등부 주일학교
미사: 토요일 오후 4시, 교리: 미사 후
- 중·고등부 주일학교
미사: 주일 오전 9시, 교리: 미사 후

■ 우리들의 경성(본당 창립 미사, 사순 제3주일)
주일헌금 2,071,500원
감사헌금 이남규, 김영신 부부(2,000,000원)
로여러분이 내주시는 감사헌금은 본당 건립기금으로 정립,
사용됩니다.

| 주보창간호 (1999. 03. 14)

* 창립미사 (1999. 03. 07)에는 주보 없이 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당 관할 구역도]



(1999. 3. 21 주보 기재)

변경 후 구역	변경 전 구역	해 당 지 역
1구역	압구정 본당 제6구역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01~211동, 현대빌라트, 대림빌라트
2구역	압구정 본당 제7A구역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0~13동, 20~22동, 31~33동
3구역	압구정 본당 제7B구역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3~25동, 51~56동, 61~65동
4구역	압구정 본당 제8A구역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1~79동
5구역	압구정 본당 제8B구역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0~87동
6구역	압구정 본당 제9구역	신사동 전 지역, 현대맨숀, 신성아파트

[본당 설립 당시 구역 분할]

(2000. 5. 31 기준)

구분 (동별)	인구수 (명)	신자 수			구성비
		남	녀	계	
압구정동	17,388	959	1,281	2,240	12.88%
신사동	3,007	168	230	398	13.23%
계	20,395	1,127	1,511	2,638	12.93%

[2000년 본당 신자 현황]



본당 설립 1주년 미사 봉헌 및
새 성전 부지 매입 시기

2000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22)

1st anniversary

“

2000년 3월 15일 본당 설립 1주년 미사를 봉헌하고,
같은 날 새 성전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

”

2000년 3월 5일 본당 설립 1주년 미사를 거행함과 동시에 같은 날 우리의 숙원이었던 성전 부지를 매입하였다. 위치는 강남구 신사동 670, 670-7번지 두 필지 총 230평이었으며, 매입가격은 총 28억원이었다. 3월 15일 성전 건립을 위한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첫 모임을 가졌으며, 교수들은 성전 건립을 위한 정성과 기도에 더욱 열중하기 시작하였다.

11월에는 본당 소식지 ‘압구정2동 성당 소식’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성당 소식지는 2001년 1월 통권 제2호부터는 ‘성가정’으로, 2002년 7월 통권 제11호부터 ‘새하늘새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11월 30일,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많은 민원을 극복하고 드디어 강남구청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공식 허가를 획득하여 본격적인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된다.





- ▶ 03월 05일 : 창립 1주년 미사 봉헌 및 성전 부지 매입
- ▶ 03월 12일 : 성전건립추진위원회 결성
- ▶ 03월 18일 : 순교자의 모후 제1차 아치에스 행사 거행 (98명 참석)
- ▶ 04월 23일 : 사목협의회 창립 (회장: 소병희 요셉, 총 33명)
- ▶ 05월 27일 : 제2회 성모의 밤 행사
- ▶ 06월 14일 : 사목 방문 (11지구장 오태순 신부 및 11지구 주임 사제단)
- ▶ 07월 11일 : 선종봉사회 (연령회) 창립 (회장: 김권철 미카엘)
- ▶ 07월 20일 : 초등부 주일학교 여름 캠프 (50명 참석)
- ▶ 10월 25일 : 전 신자를 위한 일일 피정
- ▶ 10월 29일 :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 임용식
- ▶ 11월 11일 : 본당 소식지 '압구정2동 성당 소식' 창간호 발간
- ▶ 11월 30일 : 강남구청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공식 허가 획득

본당 설립 1주년 미사 후 자축연에서의 소신부님과 김남철 (바르톨로메오) 신부님 (왼쪽)



1주년 미사

본당 설립 1주년 미사 (2000. 03. 05)

2000년 3월 5일, 교중미사로 본당 설립 1주년 기념 미사를 드렸으며.
참석한 모든 교우들이 모여 자축연을 가졌다.





1주년 미사 국수잔치

우리 본당은 설립 초기부터 유난히 국수 잔치를 많이 하였다.
사진은 본당 설립 1주년 미사를 마친 후 ICL빌딩 6층 마당에서
소신부님과 교우들이 함께 국수를 드시고 계시는 모습.



창립 1주년을 자축하며 국수를 즐기고 있는 교우들

본당 초기에 사목활동을 활발히 하셨던 김남철 (바르톨로메오) 신부님(왼쪽). 김신부님은 청소년들의 영적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고등부 미사를 맡아 집전하셨으며, 튼튼한 기틀을 잡는데 너무나도 큰 수고를 해주셨다.





14번에 영명축일을 두고 지난 9월 일·본당에서 영명 축례 행사가 있었고, 11·교장 행사가 열리고자 시작된 행사는 사제회를 비롯한 단체와 신자들은 각자 마련한 물품과 영적 애물을 소기·그리례를 신부에 전달하였다. 사제회는 신령간 강화와 본당 신자들이 지난 몇 주 동안 비해온 영의 및 활동들은 종 미사 세례 888회, 사제회를 위한 기도 987회, 꽂주기도 224회, 꽂주보 665회, 치자기의 길 307회, 회개 365회로 이어졌다.

성서 모자리
성서 모자리가 9월 27일 오전 9시
분 개강 미사를 서적으로 개강하였
다. 성서 모자리 연구회 전당 신부님
선 허영숙 마티니 선부님의 지도하
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미사
에 수업이 있다. 이번 학기에는 교
총 5번 중에 3번을 굽부한다.

**외박 교우를 위한
교리반 개장**

지난 10월 11일 교종 미사후에
제 교우를 위한 행방식이 있었다.
부 중에 한 사람만이 신자인 사람
을 위해 마련된 이 교리반은 교인
우가 함께 참석하여 수원을 들으
한 달안에 비서니 배우자가 영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반이다.
이 시간은 예주 화, 목 오후 8시에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한 노력

제자 페더(Singer Keder) '제자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봇어주시는 그림
사진제공: 김남정 바른풀로배운 산부

*원고를 모집합니다.
-수필: 신설제, 일상경험,
 성지, 고아한 등 문방문
-시, 서평 또는 연극, 영화평
 본장고기와 같은 조소식
 수시모집(시작설립)
*최신작을 꽂고 계제를 현하시는
분은 본문에 주시실걸.



[‘압구정2동 성당’ 창간호 (2000년 11월 11일)]



지거 쾤더(Sieger Köder) “보시니 참 좋았다”
사진제공 : 김남칠 바르톨로메오 신부

사진제공 : 김남철 바르톨로메오 신부

본당 소식지

2000년 11월 11일 본당 소식지 '압구정 2동 성당 소식'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격월간지)

이후 교우들의 명칭 공모를 거쳐 2001년 01월 21일 통권 제 02호부터 ‘성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새 성전 입당 직후인 2002년 07월 28일 통권 11호부터 ‘새하늘새땅’으로 그 명칭을 또 한번 변경하였다. 편집장 강득수(프란치스코) 형제님과 임연옥(마리아) 자매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으며, 2005 가을호(통권 27호) 이후 휴간하게 되었다.

예수 승천 성당 제11호

천주교 암구정1동 성당 · 2002년 7월 28일

새하늘 새땅



['새하늘새땅' 으로 명칭 변경 (2002년 07월 28일 통권 11호)]

성전 부지 매입

거룩한 성전 건립을 위한 새 부지를 마련하다.

본당 설립과 함께 최대의 과제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새 성전 건립’ 이었다.

설립 1주년이 되는 2000년, 성전건립을 향한 꿈은 구체화가 되어갔고, 부활 2주째에 성전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주임신부님을 모시고 매주 회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3월 5일 본당 설립 1주년이 되는 날, 경사가 생겼다. 성전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땅값이 비싸고 노른자위 땅인 이 지역에 새 성전을 건립할 빈터를 찾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 하느님께서는 성전으로 삼기 위해 이 곳에 빈터를 남겨 두셨던 것이다.

본당 관할 구역 전체를 볼 때 ICL 빌딩이 다소 북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새로 구입한 부지는 관할 구역 내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 더 할 나위가 없는 장소였다. 소신부님도 이러한 위치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구에 제시하였고, 결국 반영이 된 것이다.

이제 거룩한 성전 건립은 현실화가 되었으며, 당시 IMF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벽돌 한 장의 작은 정성과 동전 한닢의 마음으로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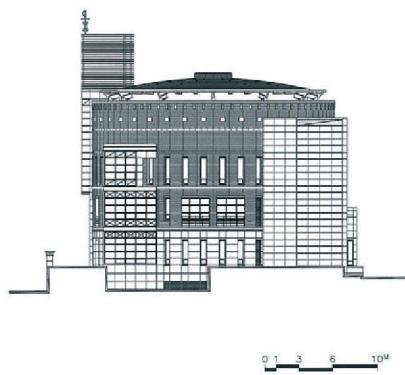
【공사 이전 현 성전 부지 전경 (강남구 신사동 670, 670-7번지 두 필지 총 230평)】

성전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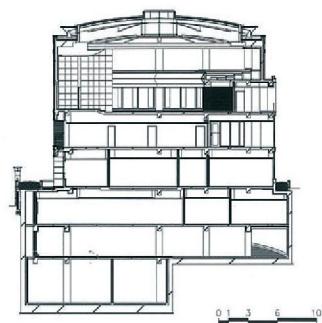
가장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하다.

부지 확보 후 성전 설계 작업에 착수하였다.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30평이란 좁은 공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는 문제였다. 따라서 법의 한도 내에서 건물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융통성 있는 공간 구성을 강조하였으며, 대지의 넓이에 비해 효율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성전 내부는 단순하면서도 우아하게 설계되고, 조명도 간접 채광을 바탕으로 하였다.



동측면도 / East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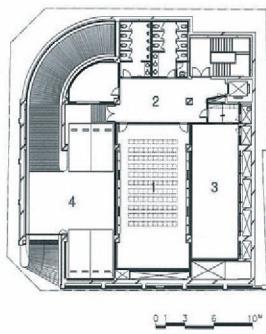


단면도 /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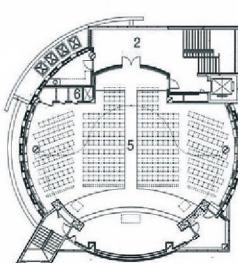
1 2

1. 흠 / Hall
2. 본당내부 / Interior of the main temple

1. 강당 / Auditorium
2. 흠 / Hall
3. 성체조례실 / Pray with the Eucharist
4. 주차장 / Parking lot
5. 회중석 / Audience space
6. 고해성사실 / Confession room



1층 평면도 / 1st floor plan



3층 평면도 / 3rd floor plan

건축허가 획득

난고(難苦) 끝에 획득한 건축허가

성전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허가를 받는 일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성전 건축이 일조권을 해치고 주차난이 생긴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를 하였고, 급기야 본당이 있는 ICL 빌딩 앞에서 농성을 하는 등 비신사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당시 구청에 민원이 제기되면 허가가 나오기 어려운 시절이었으며,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에서도 이러한 민원을 접수한 후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도 혼연일체가 된 우리 교우들의 성전 건립에 대한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본당 사목협의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인근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하였고, 또 명절 때면 선물을 돌리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끊임없는 기도를 바쳤으며, 특히 가장 큰 민원이었던 일조권 침해 문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자고 하여 전문 건축연구소에 의뢰하였고, 문제가 없다고 판명되었다.

결국 2000년 10월 23일, 강남구청 민원조정위원회에 건축허가를 심의 신청하여 11월 30일 건축 허가를 취득하게 되었다.

나중에야 증명된 사실이지만, 우리 성당이 들어섬으로써 주변 지역의 분위기는 한 단계 Upgrade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고 당연히 주민들도 좋아할 수 밖에 없었다.



[성전 부지에 있던 기존 건물들의 철거 후 모습]



모든 것이 잘 풀리나 싶었다. 그런데 근처 주민들이 알고 항의를 하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공청회를 동사무소에서 두 번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러나 끝내 주민들의 동의는 구할 수 없었다. 마침내 구청 건축심의위원회에 가서야 승인을 받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성당 앞에서 데모를 하기도 했지만 주임신부님을 비롯한 전 교우들이 인내를 가지고 참아내었다. 그리고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였다. 교우들의 기도에 화답하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에 따라 순종한 결과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

(새하늘새땅 2004년 6월호 이경표 (다비드) 당시 총무분과장 기고 기사 중 발췌)

성당 건축은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도 축복 받을 성사(聖事)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민원이 가장 큰 문제였다. 부지가 선정되고 강남구청에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울 듯 싶었다. 그러나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난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사실 유흥 음식점 같은 소비성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주민들도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다만 인내로 설득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자매님들의 수고가 컸었다. 소수이긴 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 꾸준히 설득하는 한편, 지속적인 묵주기도를 바쳤다. 물리적 마찰이나 법적 대응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소신이었는데 성전건립과 같은 성스러운 일에 조그마한 불상사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교구의 방침이기도 했다. 마침내 민간인들로 구성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성전 건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내려져 2000년 11월 30일 드디어 공식허가를 얻게 되었다.

(새하늘새땅 2001년 1월호 유태성 (로제리오) 당시 성전건립추진위원장 인터뷰 기사 중 발췌)



새 성전 착공과 상량 감사 미사 봉헌 및 본당 명칭 변경 시기

2001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다"
(로마 8,28)

Build a Church / Change Name

“

2001년 2월 19일 드디어 전 교우의 염원이었던 새 성전이 착공된다.

또한 9월 21일에는 ‘압구정2동 성당’이라는 명칭이 ‘압구정1동 성당’으로 변경 되었으며, 10월 21일에는 새 성전 상량 감사미사를 봉헌하였다.

”

2월 1일 성전 건립을 위한 전 신자 묵주기도 봉헌이 시작되었으며, 2월 15일에는 성전 건축을 담당할 시공사인 대양건설주식회사와 토목 및 기본 건축을 위한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곧 이어 2월 19일부터 현 성전을 착공하기 시작하여 성전 부지의 기존 건물 철거 작업과 함께 토목 공사가 시행되어 10월 21일 새 성전 상량감사 미사 봉헌을 드렸다.
(새 성전은 분당 이후 3년 3개월 후, 착공 15개월만에 건축이 완료되어 2002년 5월 26일 입당 봉헌미사를 드리게 된다)

5월 27일 본당 주보 성인 축일인 ‘주님 승천 대축일’에 압구정초등학교에서 약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대축제’가 열렸는데, 이는 전 교우가 참여하는 첫 본당 행사였다. 이 행사 이후 본당에 새로운 교우들이 많이 증가하여 행사의 의미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2001년에는 본당에 변화가 있었는데, 본당 명칭이 ‘압구정1동 성당’으로 변경되었다. 당시 본당 명칭과 관할구역 명칭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당에서는 서울대교구에 명칭 변경에 관한 청원문을 보냈고, 당시 정진석 대주교님께서 이를 허락하시어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1동 성당

2001년 10월 21일



2001년

주요연혁

- ▶ 01월 07일 : 성전 모형 봉헌식
- ▶ 01월 21일 : 어린이 첫 영성체
- ▶ 02월 01일 : 성전 건립을 위한 전 신자 묵주기도 봉헌 시작 (100만단 바치기)
- ▶ 02월 15일 : 성전 건축 신축공사 계약 체결 (대양건설주식회사)

▶ 02월 19일 : 새 성전 착공

- ▶ 03월 04일 : 본당 설립 2주년 미사 및 국수잔치
- ▶ 05월 01일 : 11지구 주일학교 체육대회
- ▶ 05월 12일 : 제3회 성모의 밤 행사
- ▶ 05월 27일 : ‘한마음대축제’ (장소; 압구정초등학교, 약 700여명 참석)
- ▶ 06월 06일 : 복사단 가족 모임 (장소; 인천 용유도 갯벌 솔밭)
- ▶ 06월 16일 : 제1차 남성 교우 피정 (장소; 솔뫼 성지, 44명 참석)
- ▶ 06월 27일 : 가정 방문 및 가정 축복식 (~7월 11일까지)
- ▶ 07월 24일 : 초/중고등부 주일학교 여름 행사 (장소; 한마음 수련장, 82명 참석)
- ▶ 09월 11일 : 선목회 (복사단 아버지 모임) 첫 정기 모임 (회장; 손두형 요한)
- ▶ 09월 19일 : 여성 교우 성지 순례 (장소; 솔뫼 성지, 197명 참석)
- ▶ 09월 21일 : 본당 명칭 변경 (압구정2동 성당 → 압구정1동 성당)
- ▶ 10월 14일 : 준심신 모임인 산사모 (산악회 모임) 창립 (회장; 박근성 안젤로 형제)
- ▶ 10월 21일 : 새 성전 상량 (上樑) 감사 미사 봉헌

| 새 성전 상량 감사 미사를 드리는 모습



[성전 공사 시작 진행 모습]



성전시공

새 성전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뜨다.

2000년 11월 강남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취득한 후 우리 본당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축제였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일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만큼 아름다운 성전 공사를 완료하여 전세집에서 탈피하여 반듯한 우리 집을 갖는 것이었다.

2001년 2월 15일 공사 1차 계약 체결 (토공사 및 골조공사)과 함께 4일 후인 2월 19일 공사착공을 하였다.

곧 이어 2월 22일에는 부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3월 1일 토목 공사가 즉각적으로 시행되었다.

건축허가까지의 어려움에 비하면 시공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나름대로의 난관은 또 있었다.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한 Rounding 구조가 공사하기에 매우 까다로웠으며, 골재가 올라간 상황에서 시공사가 중간에 포기하겠다고 하여 당시 사목협의회 소병희 (요셉) 회장이 겨우 무마시켜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였다.

주민들의 심한 민원으로 인하여 기공미사는 봉헌하지 못하였으며, 2001년 10월, 건축 중인 우리 본당이 위치해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새 성전 상량미사를 봉헌하였다.



【성전 건축 신축 공사 계약 체결 (2001 02 15)】

갑작스런 폭설이 내리던 2월 15일 (목), 성전 건축을 담당할 시공사인 대양 건설주식회사와 토목 및 기본 건축을 위한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자리에 본당 측에서 주임신부님과 사목협의회 총회장 소병희 (요셉), 성전건립추진위원장 유태성 (로제리오), 총무분과위원장 이경표 (다비드), 기획분과위원장 조희재 (라파엘), 성전을 설계한 PCK 종합 설계 사무소 최익현 (대건안드레이), 건축감독관 이향재 (토마스) 형제가 참석하였고, 그리고 대양건설 측에서는 김서환 사장과 정규영 이사 등 임원진이 참석하였다.

계약 체결 이후 19일 (월)부터 성전 부지의 기존 건물 철거 작업과 토목 공사가 즉각적으로 시행되었다.

(새하늘새땅 2001년 3월호 기사)



【성전 모형 봉헌식 (2001 01 07)】

성전 건축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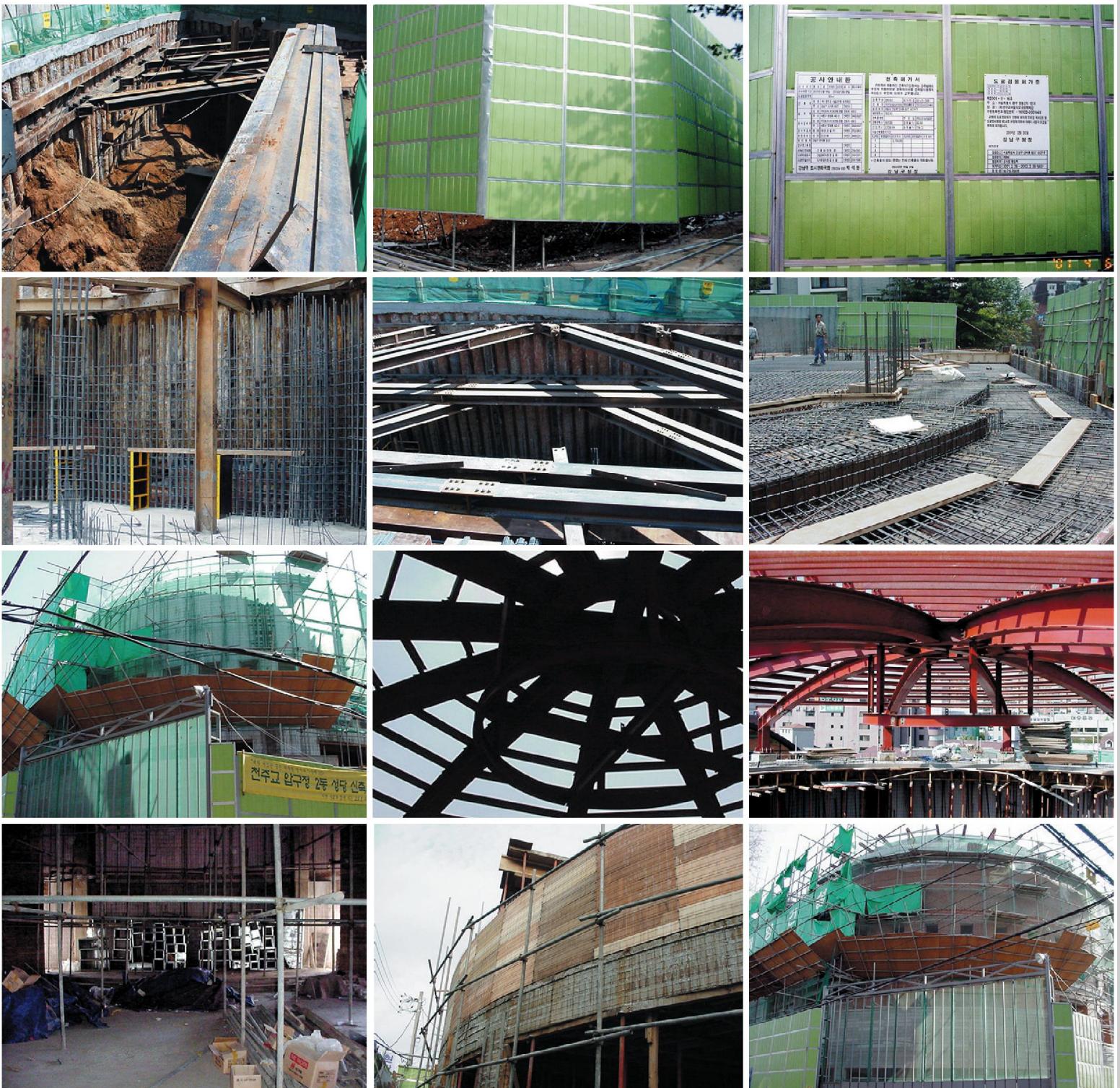
주님께 바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본당에서는 여러 가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일례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분진이 나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당시로는 보편화 되지 않았던 “안전펜스”를 설치 하였는데, 미관을 고려하여 컬러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선택하였다. 또한 공사 먼지 및 공사 차량 바퀴에서 묻어 나오는 흙으로 인한 도로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바퀴 및 도로에 물을 뿌리고 주변 도로에 카펫을 까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일은 강남구청에서도 본받을 만하다고 판단하여 직원들을 현장에 견학시키기도 하였다.

소신부님은 법적으로 하자가 생기는 일은 절대 없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특히 소방법에 저촉되는 일은 만전을 기하여 주의하라고 지시하셨다. 또한 소신부님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공개적으로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벽돌 컬러 하나도 여러 개의 후보 안을 제시한 후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였는데, 거의 전 교우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었다.

2001년 2월 19일 공사를 시작하여 8개월이 지난 10월 21일, 새 성전 상량 감사 미사를 드리며 결국 15개월의 공사 기간 중 큰 사고 없이 성전은 완공되어 가고 있었다.

본 내용은 10년사 화보집 편찬을 위하여 본당 사목협의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소병희 (요셉) 형제님과 초대 기획분과위원장이셨던 조희재 (라파엘) 형제님의 인터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새 성전 시공 과정 (2001. 02 ~ 2002. 05)]

- | | |
|--------------|---------------|
| 01_ 굴토공사 | 07_ 외부 공사 |
| 02_ 방음벽 설치 | 08_ 지붕 공사 |
| 03_ 건축허가서 | 09_ 지붕 공사 |
| 04_ 골조 배근 | 10_ 3층 성전 공사 |
| 05_ 골조 배근 | 11_ 성전 전면부 공사 |
| 06_ 1층 바닥 공사 | 12_ 성전 외벽 공사 |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천주교 암구정 1동 성당

2001년



새 성전 상량 감사 미사 (2001. 10. 21)

2001년 10월 21일 (주일) 오전 11시, 새 성전의 상량(上樑)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성전 건립'이라는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한번 더 다짐하는 '새 성전 상량 감사 미사'가 성전 건립 현장에서 봉헌되었다. 이 미사에는 김남철 (바르톨로메오) 신부님 (대신학교 교수), 허영엽 (마티아) 신부님 (성서 못자리 전담 신부님)께서 공동 집전해주셨다. 그리고 암구정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단과 여러 손님들께서 함께 해 주셨다. 미사 강론을 통하여 소원석 (가브리엘) 주임신부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새 성전 건립에 매진하여 주신 사목협의회 회장단 및 성전건립추진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새 성전 상량 미사 당일, 미사 준비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을 이용한 신자들이 없어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었던 신자들의 차량 이용으로 인한 민원은 제기되지 않았다.

(새하늘새땅 2001년 11월호 기사)

10월 21일 (주일) 오전 11시



세성전상량

천주교 암구정1동 성당

2001



감사미사

년 10월 21일 (주일) 오전 11시





[부활 성야 (2001. 04)]





[제3회 성모의 밤 (2001. 05. 12)]





복사단 체육대회

11지구 복사단 체육대회 (2001. 05. 01) 도곡초등학교

11지구 복사들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가졌다. 11지구 초등부 교사 연합회 주관으로 도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본당 복사들은 시험기간 중인 중학생 복사들이 일찍 귀가하여 수적, 체력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줄다리기 시합에서 준우승을 하였다.

(새하늘새땅 2001년 5월호 기사)





장자율 고우네 “한마음 대축제”

“아버지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11)

• **주제:** 하나님 한에 하나되기

• **일자:** 2001년 5월 27일(주일) 오전 9시 30분(행복마을 오전 10시)

• **장소:** 학교 앞 축제광장과 온·오히려

• **내용:** 축제행사, 교육·체육대회, 전시회 등



한마음 대축제

“좋기도 하시고, 아기자기한지고 형제들이 오손도손 한데 모여 사는 것!
(시편 133,1)”

한마음 대축제 (2001. 05. 27)

본당 설립 21년 후인 2001년 5월 27일,

우리 본당 주보성인 축일인 예수승천 대축일에 압구정초등학교 교정에서 전교우 및 인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한마음 대축제 마당’을 벌여 본당 공동체의 일치와 열기를 무르익게 하였다.

이 행사는 본당 설립 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행사였으므로 그 의미가 커으며, 이날 티켓 판매금 및 특별 후원금 등 한마음 대축제를 통하여 모금된 수익금 9,655,420원은 전액 성전 건립 기금으로 봉헌되었다. 특히 이 날 행사 이후 본당 교우 수가 증가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었다.

* 한마음 대축제 식순

- 연 제 : 2001년 5월 27일(주일) 오전 9시 30분
- 어디서 : 압구정초등학교
- 누 가 : 천주교 압구정2동 성당 교우들이
- 무엇을 : 개막전 행사 – 풍물패와 함께하는 길놀이
 - 1부 – 하느님과 함께 (강엄미사)
 - 2부 – 교우와 은인이 함께 (체육대회)
 - 3부 – 이웃과 함께 (먹거리 잔치)



소원석 주임신부님의 초청의 글

“신명나는 공동체, 하느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장자율 교우네’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마음과 뜻을 모아 ‘한마음’이 되기 위해 우리 본당 주보 성인 축일인 ‘예수승천대축일’(5월 27일)에 축제를, 그것도 ‘대축제’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누기 위한 축제입니다.

이 축제의 마당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을 초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명나는 공동체’, ‘하느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장자율 교우네’를 만들어 봅시다.



[행사장 접수대]



[줄넘기 시범]



[유치부 과자 따먹기 경주]



[초등부 장애물 경주]



[중고등부 레크 댄스]



[다함께 레크 댄스]

본당 명칭 변경

2001년 9월, 압구정1동 성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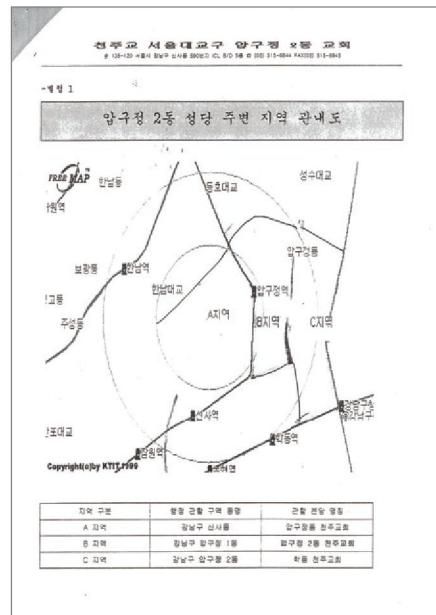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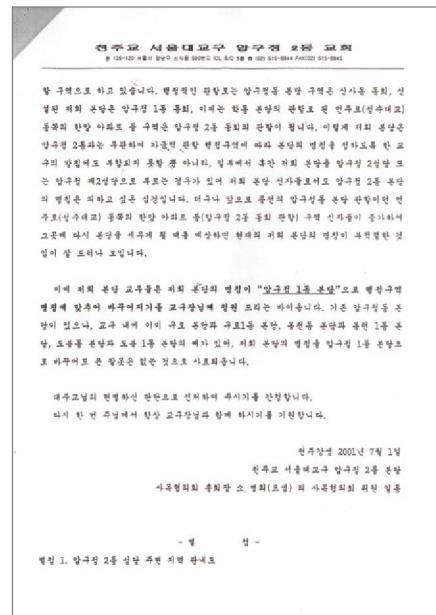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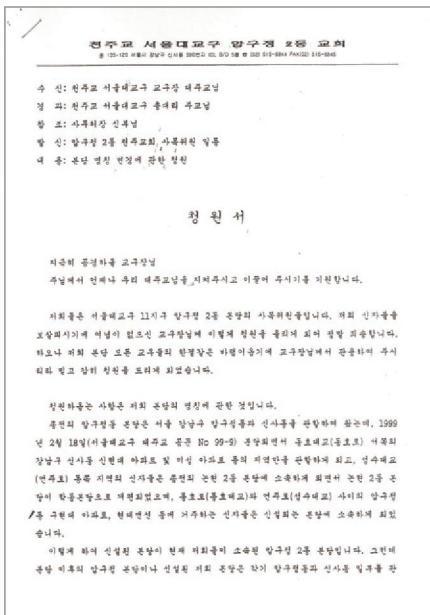
우리 본당은 1999년 분당 당시 압구정2동 성당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였는데, 당시 압구정1동은 현재 우리 본당의 관할구역인 구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었으며, 압구정2동은 현재 한양아파트 부근이었으므로, 압구정2동 성당이라는 명칭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2001년 7월 사목협의회 위원 일동으로 교구에 명칭 변경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교구에서는 2개월 후인 2001년 9월 21일 압구정1동 성당으로의 명칭 변경을 허락하시어 현 명칭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압구정1동 성당’이 된 것이다.

* 참고로 압구정동 명칭에 대한 역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압구정동은 조선시대 말까지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압구정리에 속하였다.

1914년 경기도 구역 획정 때 자연마을인 옥골을 병합하여 압구정리로 되었으며, 1963년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편입되면서 압구정동으로 바뀌었다. 이후 1975년 강남구 신설로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바뀌었으며 1988년 7월 1일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압구정1, 2동으로 분동되었다가, 2009년 3월 1일 압구정1동 및 2동이 압구정동으로 통합되었다.



【본당 명칭 변경 청원문 (2001. 07. 01)】

천주교서울대주교
100-809

서울특별시 종구 명동 2가 1번지
전화: 822-727-2114 팩스: 822-773-1947
전자우편: seoul@seoul.catholic.or.kr



ARCHBISHOP OF SEOUL
1, 2KA, MYONG-DONG, CHUNG-KU,
SEOUL 100-809, KOREA
TEL: 822-727-2114 FAX: 822-773-1947
E-mail: seoul@seoul.catholic.or.kr

사무 01 - 58 - 177

2001. 9. 21

수신: 제위 신부 및 기관장

제목: I. 본당신설 II. 인사발령 III. 몬시뇰에게 견진성사 집전 특별권한 부여
IV. 지역구 편입 V. 본당명 개명 VI. 본당 관할 구역 재조정

V. 본당명 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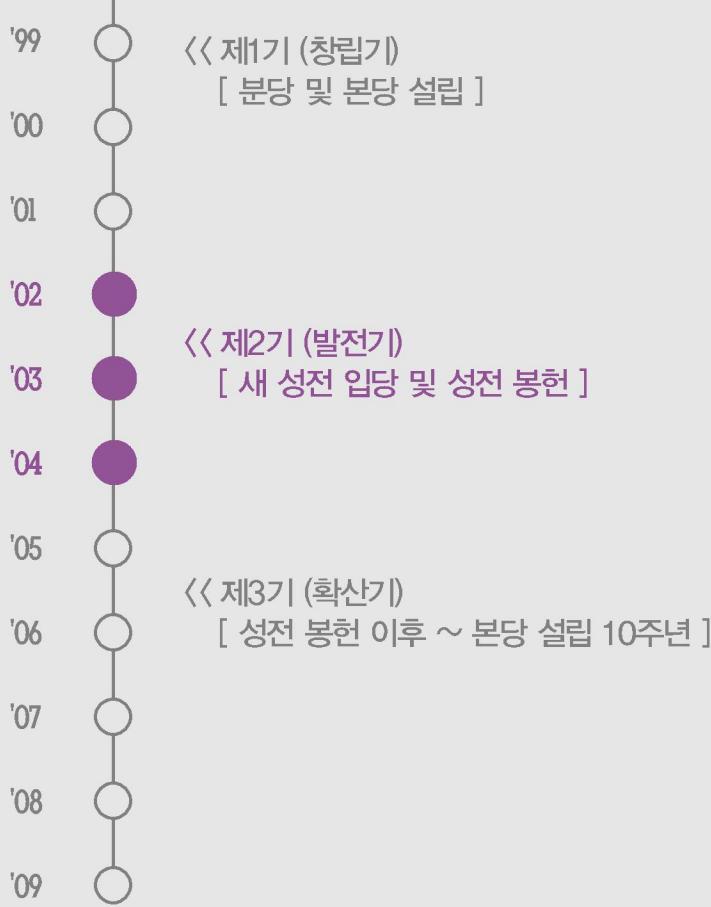
삼성 2동 본당을 삼성동 본당으로

압구정 2동 본당을 압구정 1동 본당으로

+ 26 진석

서울 대교구장 대주교 정 진 석

[서울대교구에서 보내온 본당 명칭 변경 승인 공문 (2001. 09. 21)]



제2기 | (발전기) _ [새 성전 입당 및 성전 봉헌]

“우리는 이 곳에 살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 바치나이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머무십시오”
(2역대 20,8)



2002 05 26 ~2004 05 23





새 성전 입당 시기

2002

“하느님,
이곳이 바로 당신께서 계시려고 마련하신 곳입니다”
(출애 15,17)

Holy Church

●●

2002년 5월 26일,
약 15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드디어
새 성전이 완공되고 입당 미사를 봉헌한다.

●●

2002년은 우리 본당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해였다. 모든 교우들이 꿈에도 그리던 새 성전이 완공되어 입당을 하게 된 것이다. 5월 26일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아 새 성전에서 입당 미사를 봉헌하였는데, 서울 대교구의 본당 분할 사목 방침에 따라 1999년 2월 18일 압구정 성당에서 분당되어 1999년 3월 7일 임대 건물에서 첫 미사를 봉헌한 지 약 3년 3개월만에 새 성전을 지어 하느님께 봉헌하게 된 것이다.



200
2년

주요연혁

▶ 05월 25일 : 제4회 성모의 밤 행사

▶ 05월 26일 : 새 성전 입당 미사 봉헌

▶ 07월 28일 : 본당 소식지 ‘성가정’이 ‘새하늘새땅’으로 명칭 및 판형 변경 (제11호~)

▶ 10월 03일 : 견진 성사 (황인국 마태오 몬시뇰 주례, 수혜; 88명)

▶ 10월 25일 : 본당 사목 방문 (황인국 마태오 몬시뇰 및 11지구 주임 사제단)

▶ 12월 19일 : 제2회 초/중고등부 성탄예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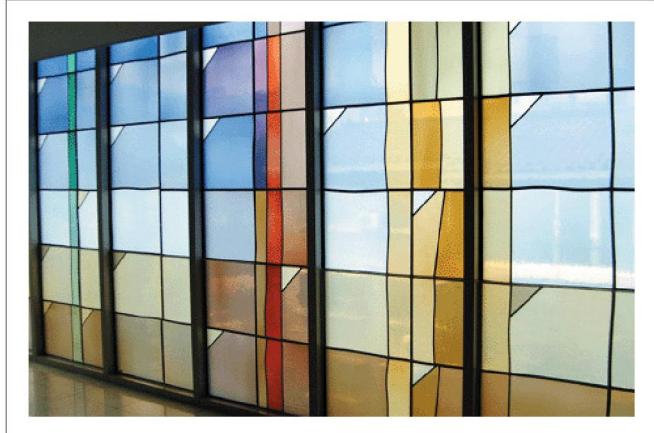
꿈에도 그리던 새 성전에 입당하다.

“나의 성전을 지어라, 나는 그 집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 (하깨 1,8)

하느님의 선민인 유대민족은 이집트에서 400년간의 종살이를 끝마치고, 하느님께서 뽑으신 모세 지도자에 의해 구출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기 위해 먼저 광야 40년을 혹독히 거쳐야 했다.

3여년간의 임대 생활을 마치고 벽찬 가슴으로 우리가 만든 본당으로 입당하는 날, 주님의 은총에 감사 드리며 첫 입당 미사를 드리게 된다.

이날 입당 미사에는 김남철 (바르톨로메오) 신부님, 홍기범 (바오로) 신부님, 이영춘 (세례자요한) 신부님, 오승원 (이냐시오) 신부님께서 공동 집전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으며, 본당 신자 뿐만 아니라 이웃 압구정 본당과 학동 본당에서도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하여 기쁨을 나누었다. 또한 소원석 주임신부님께서는 그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 수고를 해주신 교우분들께 치하를 아끼지 않으셨다.



대지면적 : 7,361m²

건축면적 : 401.367361m²

건 폐 율 : 52.6%

연 면 적 : 2,782.91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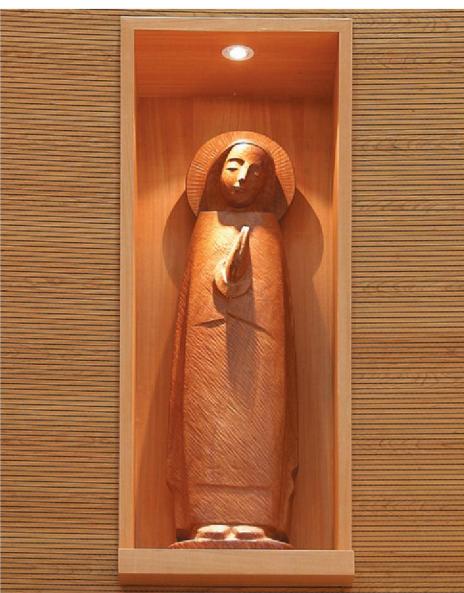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1,370.38m²

용 적 률 : 179.58%



제2기_발전기 (새 성전 입당 및 성전 봉헌) | 81





【3층 대성전】



[3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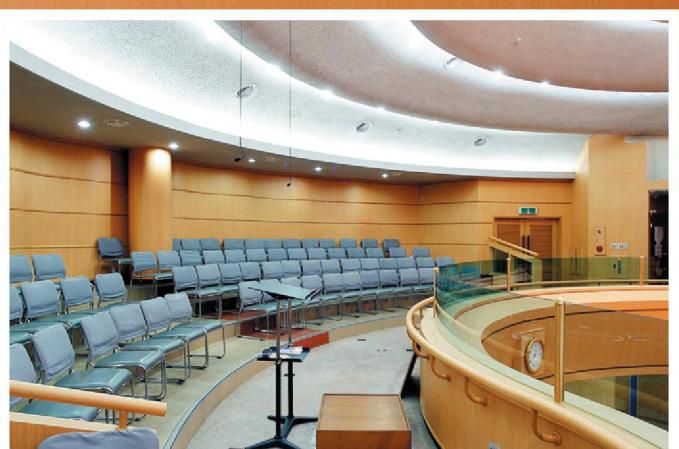
우리 본당의 자랑인 스테인드 글라스 [stained glass]

글라스 제작에 사용된 유리는 독일에서 만든 앤틱유리이다.
불어서 만든 유리로 노틀담 수녀님께서 네덜란드에 가셔서 거기서
또 9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독일에 가 발품을 팔며 고생하며 구한
특수 유리이다. 얇게 유약을 입혀 반투명으로 처리해 유리로만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는 우리 성당이 최초다. (김형주 이멜다 자매님 작품)





[4층 성가대석 및 유아실]





【성체조배실】

지하 1층 성체조배실의 무덤 제대는 순결하신 주님을 위해 고귀한 흰색과 자연색을 위주로 성체를 감싸 안으며 밸드는 모양을 하고 있다.
당시 우리 본당의 성체조배실은 타 본당에서도 견학을 왔을 정도로 잘 꾸며져 있었다.



【 2층 로비 】



【 새 성전 입당 당시 1층 로비 ; 현재와는 다소 다른 모습임 】

설계 의도

우리 본당의 대상부지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건너편 주택가 속에 위치한 230평 규모로 종교시설이 입지하기에는 작은 대지였지만, 삼면이 작은 도로로 둘러싸여 주변의 건물과 어느 정도 분리 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주 접근로는 동측에 접한 폭 7m의 남쪽으로 경사진 일방통행 도로이며 남측과 북측에는 4m와 6m의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연립주택이 위치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인이 북측의 아파트 주민들인 관계로 주 진입부는 자연스레 북측으로 위치하였고, 남측에서의 일방차량 접근은 남측의 대지 레벨 차이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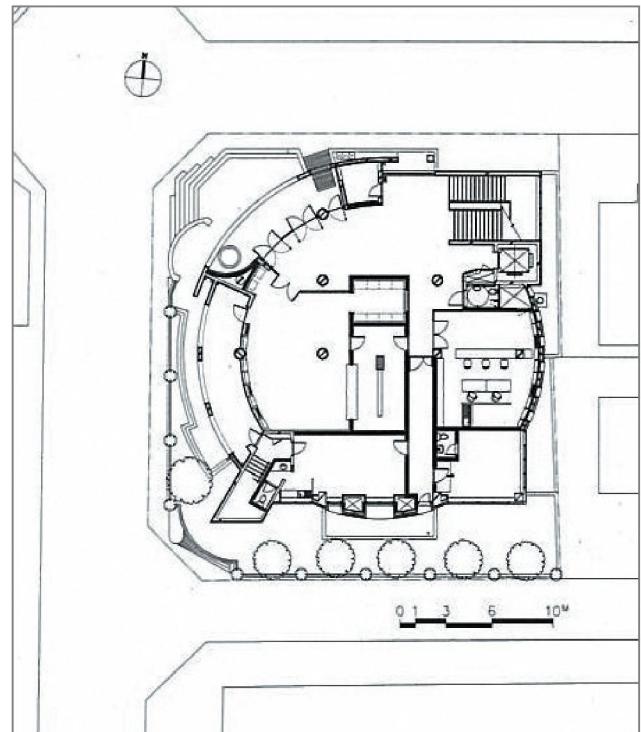
따라서 남측과 북측이 모두 건물의 얼굴이 될 수 있는 형태를 지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주변의 경사진 도로와의 관계 또한 계획 시 중요 해결과제였다.

본당의 규모는 지상 4층으로 크지는 않지만 좁은 도로에 면하여 상대적인 위압감을 해소할 수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결과적으로 건물의 모서리를 제거한 원통의 형태가 도출되었다. 외벽의 마감재로는 원통형의 매스의 구축방법을 표현하고자 기본 모듈을 가지는 전통적인 붉은 벽돌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수평요소는 밝은 화강암을, 수직요소는 검은색의 표면이 연마된 화강암을 사용하여 색상 뿐만아니라 질감의 대비를 통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또한 도로 경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대지의 경계담은 화강석 흙두기와 잔다듬 등으로 하여 석재가 주는 질량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석주와 함께 설치한 조명등은 가로조명을 겸하여 야간에 건물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가 되도록 하였다.

450석 규모인 주 미사공간으로서의 대성전은 기존성당의 전통적인 장방형 형태의 대성전을 지양하고 신자들과 교감을 이룰 수 있도록 펼쳐진 형태의 미사공간을 갖도록 구상되었다. 대성전의 내부가 원형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예상되는 음의 집중 등 음향에 대한 고려는 적절한 흡음재의 사용과 내벽면의 마감 형상, 음향시스템 등으로 해결하였다. 대성전 내부 마감은 목재를 기본 소재로 하여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마감하였으며, 적절한 돌출과 굴곡을 주어 빛과 음영이 어우러져 내부 공간을 풍성하게 느끼도록 하였다.

또한 내부 공간의 협소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1층 만남의 방과 2층 교리실 외부에 테라스를 설치하여 내부와 외부공간이 서로 관입되도록 계획하였다.

본 내용은 본당 설계 업체인 PCA건축에서
2003년 3월 [건축세계]에 기재한 글임



배치도 | Site plan



새 성전 입당미사 봉헌

2002년 5월 26일, 15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드디어 새 성전에 입당하게 된다.

2002년 5월 26일, 압구정 성당에서 분당된지 약 3년 3개월만에 새 성전에 입당하는 감격을
누리며, 전 교우들이 입당미사를 봉헌하였다.



[소원석 주임신부님]



[오승원 신부님]



[김남철 신부님]



[소병희 회장님]







제2회 성탄대축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1고린 10,31)’

2002년 12월 19일 오후 5시. 초, 중, 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부 젊은이들의 성탄 예술제가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주님의 기도’로 시작된 천사들의 합창은 1부 ‘천사들의 메시지 (사회 : 김신야 아네스, 김영주 라파엘 청년연합회 회장단)’와 2부 ‘천사들의 속삭임 (사회 : 임희원 가타리나, 조윤아 안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새하늘새땅 2003년 1월호 기사)





엠마오 빨대 시기

2003

“바로 그 날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삼십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면서 이 즈음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란히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인 채 걸음을 멈추었다.”

(루가 24,13 – 17)

Emaos

“

2003년 8월 17일,
지역 방범 봉사를 위한 엠마오 봉사대가 발족된다.

”

2003년 8월, 우리 본당은 사회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방범을 목적으로 하는 엠마오 봉사대를 발족하였다.

엠마오 봉사대의 예방 방범 순찰활동은 우리 지역의 파출소, 동사무소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유기적인 연락 하에 운영되었으며, 그들의 치안유지 노력에 적극 협조하였다. 엠마오 봉사대는 우리 자녀와 가정은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는 자조의 정신으로 이 지역사회를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변모시키는데 헌신한 우리 본당의 자랑거리였다.



우리 이웃은 우리가 지킨다 —

압구정 1동 지역 주민을 위한 자원 봉사대

엄마인 봉사대 발대식

— 010-4730-0511 (교수/교수/교수/교수 미시수) ■ 주관: 압구정 1동 교회 사목 협의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시편 23,4)

제1회 구약별 연도 경인 대회

일시: 2003년 11월 16일(주일) 오후 6시 / 장소: 성당

천주교 압구정 1동 성당

2003년

주요연혁

- ▶ 02월 23일 : 제2기 본당사목협의회 구성 (회장; 소병희 요셉 연임, 38명)
- ▶ 03월 02일 :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창립 및 첫 주회 실시
- ▶ 03월 23일 : 청년연합회 임원 및 단체장 임명
- ▶ 05월 31일 : 제5회 성모의 밤 행사
- ▶ 06월 01일 : 11지구 청소년 축제 (찬울제, 장소; 경기고)
- ▶ 06월 06일 : 11지구 복사단 체육대회 (장소; 수도공고)
- ▶ 08월 17일 : 엠마오 (방법) 봉사대 발대식 (25명)
- ▶ 09월 28일 : 제1회 나오스 성가대 정기 발표회
- ▶ 11월 02일 : 11지구 초등부 주일학교 성가잔치 (장소; 수서동 성당)
- ▶ 11월 16일 : 본당 구역별 연도 경연대회
- ▶ 12월 14일 : 순교자의 모후 꾸리아 연차 총친목회



[엠마오 봉사대 발족 (2003. 08. 17)]





7 핸드메이드 도자기 제품들



압구정 밤거리 ‘교수 순찰대’ 떴다



“시

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밤 9시 TV 뉴스의 클로징 멘트가 끝났는데 대학생
들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문용린 교수(66·서울대 교육학과)는 책을 들여다보면서도 딸 걱
정에 책장이 잘 넘나가지 않는다. 건강으로 책장을 뒤적이던 문 교
수는 금기야 전화기를 집어 든다.

“어디야? 아니, 지금이 몇 시인가 아직도 안 들어와?”

전화번호를 누를 때만 해도 “매일 늦는 것도 아니니 좋은 말로 잘
타일리아지”하고 다짐했건만 또 연성을 높이고 말았다.

문 교수는 “밖은 깜깜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의 목소리를 수화
기 너머로만 들고 있자면 나도 모르게 불안해진다. 딸 가진 부모들은
은 다 같은 심정일 것”이라며 쓴웃음을 짓는다.

불과 3년 전 한국의 청소년, 교육문제를 총지휘하던 교육부 장관
이었지만, 이럴 땐 딸의 귀갓길을 걱정하며 조바심을 내는 어느 평
범한 아버지와 다를 바 없다. 단,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집에서 속
을 끌이며 앉아 있었던은 않는다는 것. 그는 요즘 2, 3일에 한번씩
춥고 인적이 끊긴 밤거리에서 순찰을 돈다. 교육학자이자 전 교육
부장관인 그가 한밤중에 곤봉을 틀게 된 사연은 뭘까.

● 밤 10시반: 교수들, 곤봉을 들다

기온이 갑자기 영하로 떨어진 6일 밤, 문 교수를 따라 도착한 서
울 강남구 압구정1동의 성당 앞,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더
니 성당 사무실에서 타격용 곤봉이 달린 하리띠, 야광 띠가 부착된
순찰조끼를 주섬주섬 꺼내 입었다.

모두 41명으로 구성된 이들 주민자치 방범순찰대원들은 같은 동
네 성당을 다니는 지역 주민들, 6월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대생이 납치되는 등 강남을 ‘표적’으로 한 사건사고가 빈번할 즈
음 문 교수는 자원봉사 순찰대 모집을 제안했다.

문 교수는 “강남에서도 압구정동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가까운
이웃들이 잇단 강력사건으로 피해를 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우
리 딸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뭔가를 하자는 소박한 취지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의 제안에 같은 동네에 사는 김용성(44·국민대 건축학
과), 소영성 교수(47·명지대 정보공학과) 등이 선뜻 호응하면서 구
체적인 활동계획이 서기 시작했고 30여명의 성당 신자들이 가담하
면서 8월에 ‘엠마오 봉사대’가 정식 출범했다. 이 가운데 대학교수

는 6명.

봉사대장인 김 교수는 “강단에서야 거리낄 것이 없지만 1
분야인 방범순찰대원으로 나서니 처음엔 어디서, 어떻게, 무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한다. 막상 ‘사건 현장’에 부딪쳐게 되면
게 해야 하니, 길거리의 아이들이 ‘뭔데 참견이나’며 되레 반
대라고 해야 하니, 모든 게 걱정거리였다.

그러나 넉 달이 지나자 제법 관록이 붙었다. 주거지역에 따
조로 나누고 요일별로 당번을 정해 밤 10시반경부터 순찰을
을 돈다. 함께 다니는 인원이 8명 이상 되지 않으면 순찰을
도록 원칙도 세웠다.

인원이 너무 적으면 어두운 골목길에서 되레 범죄의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원미달로 순찰을 ‘건너 뛴
하루도 없다.

대부분 예비군 훈련을 마친 지 10년이 넘었지만, 곤봉을
루듯 움켜쥐고 9V 대형 플래시와 경광봉, 호루라기까지 ‘완전
을 한 뒤 ‘밤의 출정’에 나섰다.

김재영기자 jaykim@da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본당 엠마오 봉사대를 소개한 2003년 12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 원본]



겨울산행 100% 즐기기

“불꺼진 창-빈집 보면 긴장돼요”

■ 1면에서 이어집니다

● 밤11시 5분: 칠흙같은 골목길

“어, 이 집 또 대문 열어놨네.”

주택가 골목 어귀를 플레이시로 비추던 소영성 교수가 한 집을 가리키며 혀를 쳤다.

같이 순찰을 돌던 한 대원이 휴대전화를 끼니내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이를 휴대전화에는 신사파출소, 압구정1동 체안센터, 동시무소 등의 비상연락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다.

번화기를 지나 들어선 주택 골목길은 상당히 어두웠다. 앞길 번화거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분위기였다. 소 교수는 “가끔 불 꺼진 빈집이나 대문이 열린 집을 지나치다 보면 ‘혹시나’ 하는 생각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9월 노부부 살해 사건이 났던 집 앞을 지날 때면 아직도 모골이 송연한 느낌이 가시지 않는다.

대원들은 구석구석을 플레이시로 비추며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다. 봉사대원들은 매일 동선을 달리해 순찰을 돈다.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다.

순찰구역은 동호대교 남단에서부터 성수대교 남단에 이르는 현대아파트 단지와 도산공원 앞 사거리에서 안제 병원 사거리에 이르는 신사동 주택구역 등 두 블록, 2.5km²의 면적에 7500여가구, 2만여명이 사는, 작지 않은 구역이다. 대로 양쪽의 골목들을 중심으로 압구정로 좌우 두 블록의 모든 골목들을 거의 다 돌아다닌다.

주택가 골목길을 돌아 어득한 아파트 셋길로 접어들 즈음, 순찰대원인 김영진 교수(45·경기대 신소재공학과)가 혼자 걸어가던 한 여학생에게 “학생, 밝은 쪽으로 다니는 게 좋겠어요”하고 말을 건넸다. 여학생은 무표정한 얼굴로 김 교수를 훑듯 쳐다보더니 가던 길을 계속 갔다. 미쓱해진 김 교수는 “사실, 조심하라고 말해야 하는 현실이 더 안타깝다”며 여학생에게는 길 쪽으로 플레이시를 한참 동안 비춰주었다.

대원들은 얼마 전 아파트단지 옆 길 가에서 한 여대생이 만취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길까지 바래다준 적도 있다. 올봄 여대생 납치사건이 발생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악몽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모두들 절대로 제2, 제3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긴장감을 높주는 일이 없다. 사실 소 교수는 중학교 1학년, 여섯살짜리 두 아들만 두고 있어 아직 크게 밤길 걱정할 일은 없다. 그런데도 왜 이 일을 하는냐고 물자, “내 아이뿐 아니라 내 제자도 소중하다”며 “안심하고 자식을 키우고



깊은 부모들의 마음을 모아, 보이지 않는 범죄자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 밤11시 37분: 곤봉을 놓고…

이날 순찰은 별다른 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대원들의 얼굴에서 긴장이 서서히 풀려가는 분위기다. 한 대원은 자신을 따라 나온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순찰을 들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대화도 나누었다. 그는 요즘 한창 화제로 떠오른 연예인 이야기를 하다가 “아빠는 그것도 끌리요?”하는 편장을 듣고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대원들 가족들은 처음엔 “낮에 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왜 사서 고생이네”면서 만류했지만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나온다는 박상현씨(43·개인사업)는 “퇴근이 좀 늦으면 아내가 전화를 걸어 ‘방범순찰을 안 나가느냐’고 독촉할 정도”라며 “스스로의 생활에서도 절제를 하게 된다”고 흡족해 했다.

배정된 요일에 관계없이 매일 참여해 별명이 ‘전국구’인 배창희씨(46·의사)도 “하루 순찰을 마치고 나면 1만 보를 걷는 효과가 있어 가족과 주위사람들에게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엔 부인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등 가족 모임으로까지 확대됐다. 대원들은 이웃끼리 자주 만나게 되고, 마치 블루먼 풍네의 골목골목 지행과 점포들을 속속들이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자평한다.



이종승기자 urisessing@donga.com
기운이 영하로 내리간 1일 밤, 추위에 주먹을 꼭 쥔 순찰 대원들이 압구정1동 성당 주변의 신사동 주변을 돌고 있다(위). 순찰대장을 맡고 있는 김용성 국민대 교수가 아파트 단지 내에 비상등이 끼져 있는 층이 없는 지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올해 재편된 경찰의 순찰지구대 중심의 체계가 생활 치안 강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동네에 한 명씩 있던 파출소 경찰이 없어진 바람에 긴급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 대원들은 그간의 활동내용을 정리해 구청, 시청 및 경찰 등에게 개선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용린 교수는 “주민 자율방범순찰 활동은 선진국에선 자연스러운 활동”

이라며 “자율방범활동이 확산돼 이웃 간의 벽도 허물고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 모든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곤봉을 아주 내려 놓아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다. 하루하루의 작은 노력이 쌓여 언젠가는 순찰이 아니라, 가벼운 산책만 해도 좋을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곤봉을 든 대원들은 오늘 밤도 어김없이 추운 밤거리로 나선다.

이종승기자 urisessing@donga.com
“우리 아이들의 범 귀갓길은 우리가 지킨다!” 문용린 서울대 교수(기운데) 등 교수들이 주축이 된 순찰대가 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옆 진입로에서 출동준비를 하고 있다. 이 곳은 5월 여대생 납치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이다. 이날 순찰에는 교수 4명과 의사 변호사 기업인 등 지역주민들이 참가했다.

이전공부
었부터
면 어울
말하면
라 6개
지 순찰
풀지 않
될 수
'남은'

소총 다
무장
ng.com



[엠마오 봉사대 1주년 기념 행사 (2004. 08. 29)]

엠마오 봉사대 1주년 기념

드디어 엠마오 봉사대가 예방방법 순찰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6월 (2003. 06. 21) 남성피정에서 발의된 아래, 두 달간에 걸친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제 비로소 명실상부한 봉사대를 발족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루까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후, 허탈과 불안에 휩싸인 제자들은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엠마오는 동네를 향해서 제자 두 명이 불안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때 한 나그네가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 마을에 잘 도착하여 반기운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고 있는 사이 그 나그네는 훌연히 사라졌습니다.

그 나그네가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불안하고 무서운 밤길을 걷는 제자를 동행해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셨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는 외롭고 무서운 밤길을 걷는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하느님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불안에 떨면서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힘을 모아 범죄꾼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을을 탄탄히 지키는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동네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오고 가며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엠마오 길을 동행해 주시던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해주고자 합니다. 밤이 늦은 시각에 불안한 마음으로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는 우리나라 어디에도 많습니다.

그런 부모들 중에서 압구정동 부모들의 불안이 가장 으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가 실제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정말로 우리 지역이 범죄의 타겟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별씨 그런 징후가 보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주민인 우리가 뭉쳐야 합니다. 마을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주민들 간에 공동체의식을 살려서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마을 우리가 지킨다는 각오를 분명하게 보여 줄 때 범죄꾼들은 더 이상 우리 마을을 넘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엠마오 봉사대는 이런 일에 겨자씨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엠마오 봉사대는 이번 8월 25일부터 3인 1조가 2조씩 짹을 지어 방범순찰 장비를 착용한 후에, 우리 마을의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봉사를 돌려고 합니다. 밤 11시부터 시작해서 자정 12시까지 봉사대는 무섭고 불안해서 총총 걸음을 걷는 우리의 자녀와 주민들에게 “엠마오의 동행 예수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용린 (돈보스코) 당시 본당 사목협의회 부회장 기고

(새하늘새땅 2003년 9월호 기사)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창립 및 첫 주회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창립 및 첫 주회 (2003. 03. 02)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Society of St. Vincent de Paul]는 1833년 복자 프레드릭 오자냥과 그 동료들이 설립한 평신도 사도직 단체이다. 설립목적은 소외계층을 위한 애덕의 실천이며, 주요활동으로는 선교, 구제, 교육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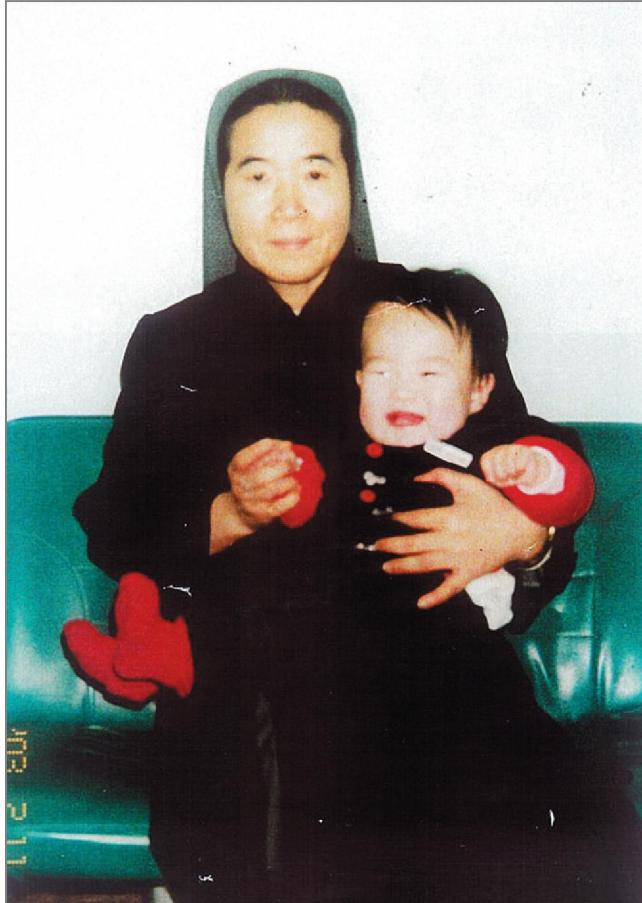
발행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암구정1동교회
주임사제: 소원석(가브리엘)신부

2003년 3월

가난한 사람들의 벗



성빈첸시오 아바오로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암구정1동 협의회



우리 본당에서는 2003년 3월 창립되어 5월 4일 제4차 주회에서 장애고아(김어진)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6회에 걸쳐 활동회원의 비밀헌금으로 모금된 지원금을 보냈으며, 김영래(보니나) 수녀님이 보호 중이다.





[십자가의 길]

남성 총구역 피정

남성 총구역에서는 2003년 6월 21일 (토)부터 22일 (일)까지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도전 3리 651-2에 위치한 스승예수의 제자수녀회에서 피정을 가졌다.



[사도의 모후 단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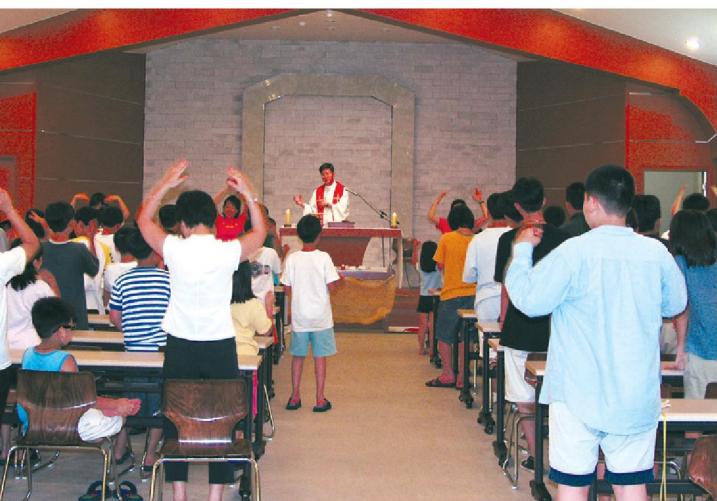


주일학교 여름 캠프

주일학교 여름 캠프 (2003. 07. 23 ~ 07. 25) 경기도 의정부 한마음 수련장

2003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의정부의 한마음 수련장에서 초등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주제로, 중고등부는 '함께라면'이라는 주제로 여름캠프를 개최하였다.
이 캠프에는 초등부 고학년 (3학년 ~ 6학년) 50명, 중고등부 27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새하늘새땅 2003년 9월호 기사)





제1회 나오는 성가대 발표

제1회 나오스 성가대 발표 (2003. 09. 28)

2003년 9월 28일 (주일) 저녁, 본당 성인 성가대인 ‘나오는 성가대’ (단장 이범수 다퉁, 지휘 강혜경 모니카)의 제1회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나오는”라는 말은 희랍어로 ‘하느님의 거처’, 즉 ‘성전’을 뜻하며, 구약성서의 희랍어 번역본인 70인역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참조. 시편 45, 15)의 표현으로, 신약성서에서는 ‘영적 성전’ (참조. 1고린 3,16; 6,19; 2고린 6,16-17)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새하늘새땅 2003년 11월호 기사)

성전 건립기금 마련

나오스 성가대 제1회 발표회



“나오스 성가 발표회”

이 발표회를 위하여 모든 단원들이 하나가 되어 지난 부활절 이후부터 준비를 하였다.

발표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신자들은 훌륭한 발표회를 준비한 성가대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으며, 1부와 2부로 구성된 발표회는 1부에서는 주기도문 등 성가 7곡을 불렀고, 2부에서는 목련화, 사랑으로 등 애창곡 6곡을 발표하였다. 1999년 2월 압구정1동 본당이 설립된 이후 첫 부활 전례를 위해 조직된 나오스 성가대는 지난 4년간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날 발표에는 특별 출연으로 김경운 (레아)의 바이올린 연주가 있었다.

특히 성가대는 당일 영명축일을 맞이하신 본당 신부님을 위하여 앙코르 곡으로 ‘Amazing Grace’를 불러 그동안 성가대를 향한 신부님의 격려와 아낌 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렸다.

일시: 2003. 9. 28(日) 오후 7시 30분

장소: 압구정1동성당 성전(3층)



구역별 연도 경연대회

구역별 연도 경연대회 (2003. 11. 16)

위령성월인 2003년 11월 16일 (주일) 저녁, 본당에서 처음으로 '구역별 연도 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 6개 구역 300여명의 교우가 참석한 이번 대회를 통하여 구역/반의 일치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번 대회에는 3구역이 최우수상을, 1구역과 2구역이 우수상을, 나머지 구역이 노력상을 받았고, 부상으로 구역 활성화 기금을 수여 받았다. 특히 외부 심사위원으로 압구정 본당 이돈만 (요한비안네) 선종봉사회 회장과 장관옥 (스테파노) 논현2동 본당 선종봉사회 회장이 초대되어 지역 본당 간의 형제적 나눔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

(새하늘새땅 2004년 1월호 기사)



01	02	03
04	05	06

01_ 1구역 04_ 4구역
02_ 2구역 05_ 5구역
03_ 3구역 06_ 6구역

: 2003. 11. 26



선목회/모니카회 합동 송년회

선목회 및 모니카회 합동 송년회 (2003. 11. 26)

2003년 11월 26일 (수) 복사단 아버지 모임인 선한목자회 (회장 이영대 프란치스코)와 어머니 모임인 모니카회 (회장 이미경 카타리나)가 합동 송년 모임을 가졌다.

당시 주임신부님이었던 소원석 (가브리엘) 신부님과 15명의 선목회 회원 형제님들, 17명의 모니카회 회원 자매님들이 참석하여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새하늘새땅 2005년 9월호 기사)

장소 : Ⓜ 호텔 고기마



[이영대 (프란치스코) 당시 선목회 회장]



새 성전 봉헌 시기

2004

“사람들은 다 같이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불렀다.
하느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 소리가 한 소리처럼 들렸다.
나팔과 바라와 악기 소리에 맞추어,
'하느님 어지셔라, 그 사랑 영원하여라' 소리 높여 찬양하는데,
하느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역대기 하 6,13)

Dedicate a Church

“

2004년 5월 23일,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님을 모시고
새 성전 봉헌 미사를 드린다.

”

2004년 5월 23일 (주일, 주님승천대축일),
본당 성전 봉헌 미사가 서울대교구장이신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님의 주례로 성대하게 봉헌되었다.
성전 봉헌 미사는 지난 5년간 이어진 성전 봉헌을 위한 모든 신자들의 노력과 기도의 완결이었다.



200
4년

주요연혁

- ▶ 03월 07일 : 사순절 신앙 강좌 (강사; 한원식 요한 신부님)
- ▶ 03월 26일 : 순교자의 모후 Cu. 제5차 아치에스 행사
- ▶ 03월 30일 : 성전 봉헌식 (축성식)을 준비하는 54일 기도 시작
- ▶ 05월 01일 : 제6회 성모의 밤 행사
- ▶ 05월 02일 : 부활절 음악미사 봉헌 (주관; 생활음악연구소)
- ▶ **05월 23일 : 새 성전 봉헌 미사** (정진석 추기경님 집전)

성전 봉헌 미사

추기경님을 모시고 성전 봉헌 미사를 드리다.

2004년 5월 23일 (주님승천대축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님 집전으로 거행된 성전봉헌미사는 본당 신자 800여 명과 손님 100여명이 참석하여 본당 3층과 4층에 위치한 성전을 꽉 메우고도 모자라 1층과 2층에 미사 영상을 중계해야 했다. 봉헌미사에는 동서울지역 주교 대리이신 황인국 (마태오) 몬시뇰님과 우리 본당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계신 김남철 (바르톨로메오) 신부님, 홍기범 (바오로) 신부님, 박병준 (루이스) 신부님 등 여러 손님 신부님들과 수녀님들께서 참석하셨다. 10시 30분부터 시작되어 2시간 30분간 진행된 미사를 통해 주임신부님을 중심으로 본당 건축을 위해 애쓴 모든 신자들이 축복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 미사가 끝난 후 2층과 지하 강당,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마련된 음식을 들며 지난 5년간 애쓴 공로와 수고를 자축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새하늘새땅 2004년 6월호 기사)



성전 봉헌미사
초·대·합·니·다



예수승천 천주교 압구정1동 성당

성전 봉헌미사 안내

일시 : 2004년 5월 23일(주일, 주님승천대축일)
오전 10시 30분

집전 : 서울대교구장 정진석(니콜라오) 대주교

행사 : 제1부 - 성전 봉헌 전 행사
제2부 - 성전 봉헌 미사
제3부 - 성전 봉헌 기념 축하식
제4부 - 성전 봉헌 기념 축하연

주소 : 42, 32, 42-1, 355길 23동 대교구관 2층
전화번호 : 02-21, 23, 63-1, 77-1, 78-1, 222, 239-1, 710, 716
※ 당일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찬미 예수님

저희 모두의 믿음을 모아 주춧돌이 되고
저희 모두의 사랑을 모아 벽을 이루고
저희 모두의 희망을 모아 지붕을 만들어 주시면 더없이 기쁠것이 되겠습니다.

천주교 압구정1동 성당
주임신부: 소원석(기브리엘)
시목회장: 소명희(요한)
교구장: 김재현

[성전 봉헌식 초대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압구정1동 성당
성전 봉헌미사



(주보 : 예수승천)

일시: 2004년 5월 23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집전: 서울대교구장 정진석(니콜라오) 대주교

[성전 봉헌 미사 책자]

“저희 모두의 믿음을 모아 주춧돌이 되고 저의 모두의 사랑을 모아 벽을 이루고
저희 모두의 희망을 모아 지붕을 만들어 주님의 성전을 봉헌합니다.”



[새 성전 봉헌 미사 (2004. 05.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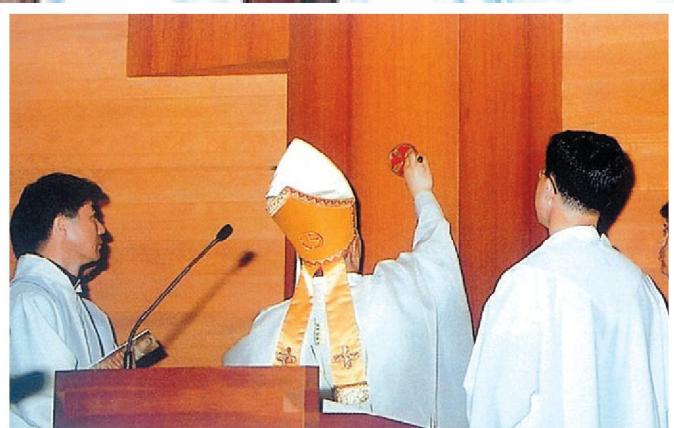
제2기_발전기 (새 성전 입당 및 성전 봉헌)



“이것이 신앙고백입니다.”

이 성당은 신앙의 힘으로 지었지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 아무런 의미도 없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집으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기도를 하면서 지은 것입니다. 이 축성식에서 이런 것을 정식으로 하느님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고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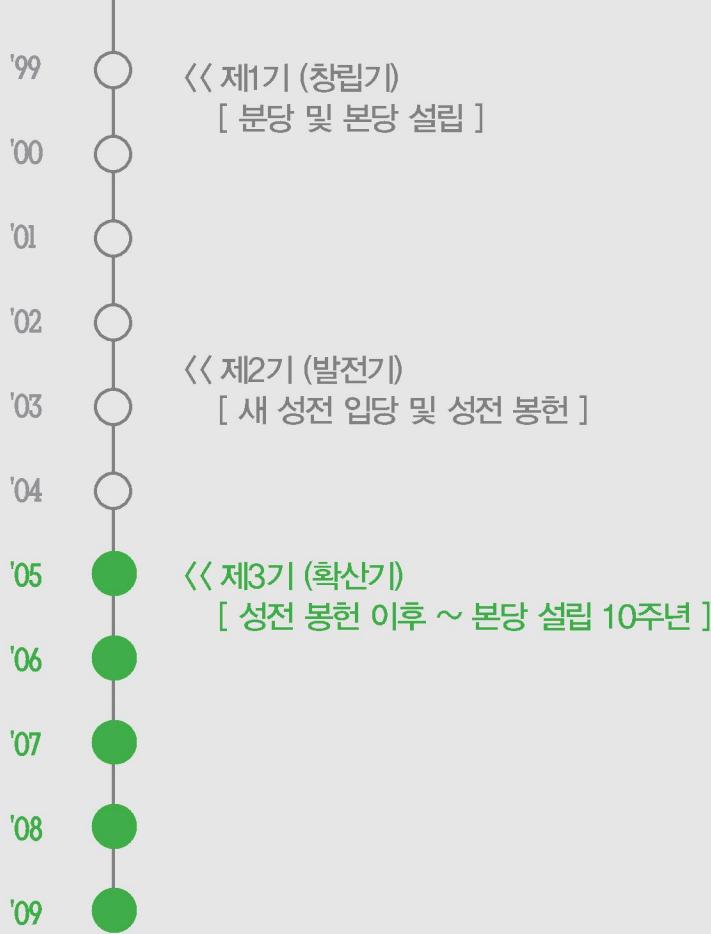
| 성전봉헌식에서 추기경님의 강론 말씀 중



제2기_발전기 (새 성전 입당 및 성전 봉헌) | 127







제3기 | (확산기) _ [성전 봉헌 이후 ~ 본당 설립 10주년]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다”
(로마 8,28)



2004 05 24 ~ 현재





제2대 정병조 (베드로)
주임신부님 부임 시기

2004 05 ~ 2005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이다”
(요한 2,17)

Father Peter Chung

“

2005년 9월

초대 주임 소원석 (가브리엘) 신부님이 이임하시고
제2대 주임 정병조 (베드로) 신부님이 부임하신다.

”

9월 21일, 본당 설립과 함께 초대 주임으로 부임하여 성전 건립 및 봉헌 등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던 소원석 (가브리엘) 신부님께서 이임하셨다. 無의 상태에서 시작하여 가장 신심 깊은 본당을 만들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사목활동을 하셨던 소신부님은 본당의 산 역사로 기억되며 전 교우들의 슬픔을 뒤로 한 채 이임하셨다.

소신부님 후임으로 2대 주임으로 방학동 본당 주임으로 계셨던 정병조 (베드로) 신부님께서 부임하게 된다. 정신부님은 재임기간 중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사목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어르신 잔치 및 솔로몬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11월 30일에는 한정수 (베드로) 신부님이 본당 초대 보좌로 오셨는데 한신부님은 의정부교구에서 파견되어 본당에 부임하셨으며, 초등부 및 중고등부를 맡아 여러 치례의 캠프를 주관하시는 등 활발한 사목활동을 하셨다.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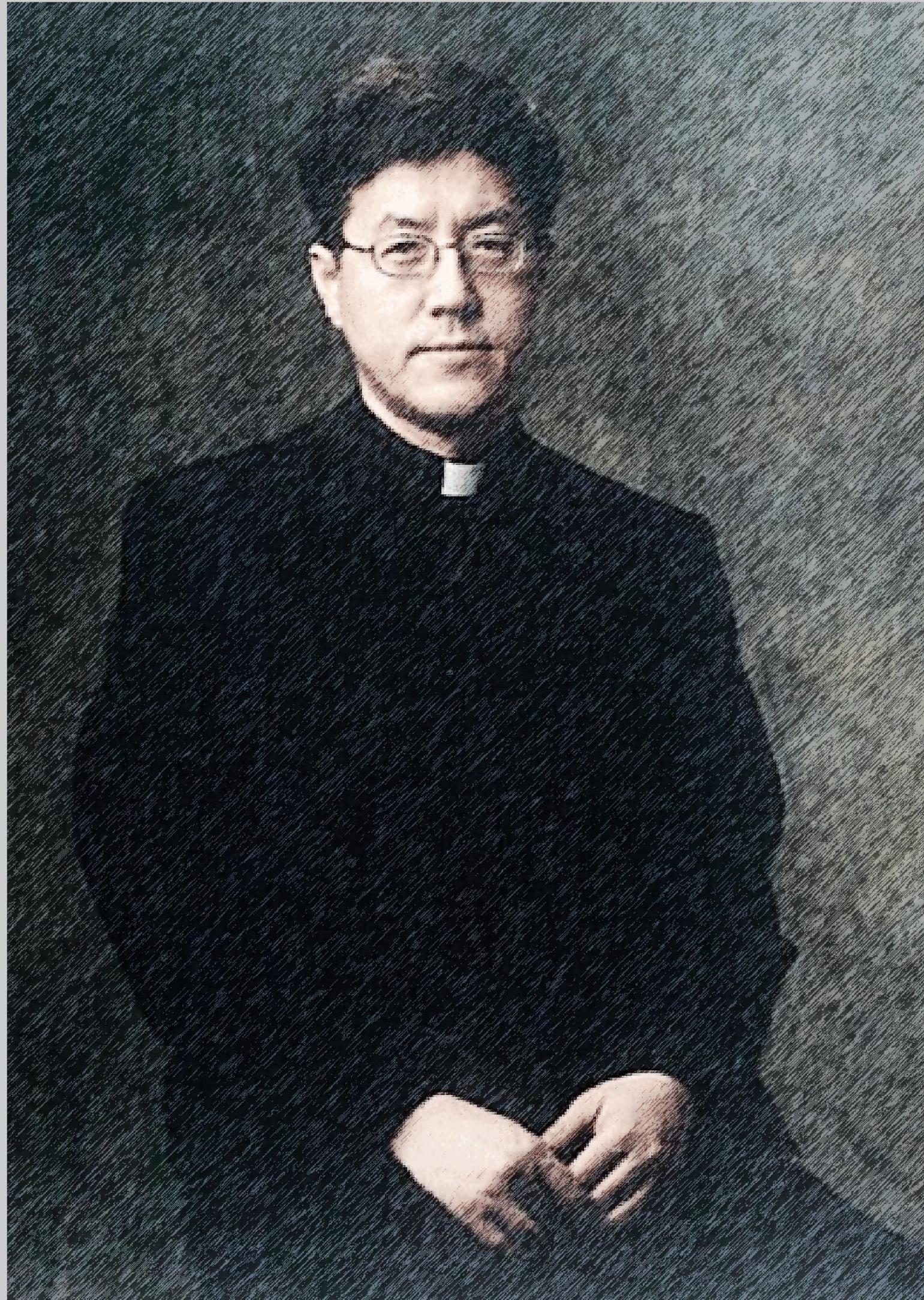
주요연혁

2004년

- ▶ 08월 29일 : 엠마오 1주년 행사
- ▶ 09월 21일 : 초대 주임 소원석 (가브리엘) 신부님 이임
- ▶ 09월 21일 : 제2대 주임 정병조 (베드로) 신부님 부임
- ▶ 10월 24일 : 11지구 연도 경연대회
- ▶ 10월 31일 : 11지구 초등부 주일학교 성가 잔치
- ▶ 11월 20일 : 견진 성사 (염수정 주교님 주례)
- ▶ 11월 30일 : 초대 보좌 한정수 (베드로) 신부님 부임

2005년

- ▶ 01월 06일 : 가정의 모후 꾸리아 창단 (단장: 최치만 요셉)
- ▶ 02월 20일 : 제3기 사목협의회 구성 (3대 회장: 임학언 바오로)
- ▶ 02월 27일 : 본당 울뜨레야 출범
- ▶ 05월 01일 : 제1회 어르신 잔치
- ▶ 05월 07일 : 제7회 성모의 밤 행사
- ▶ 06월 12일 : 본당 M.E가족 출범
- ▶ 07월 07일 : 김지훈 신학생 부제(副祭) 서품(敍品)
- ▶ 07월 25일 : 주일학교 여름 캠프
- ▶ 08월 06일 : 복사단 가족 캠프
- ▶ 08월 19일 : 청년 여름 캠프
- ▶ 08월 29일 : 수녀원 건물 매입 (신성아파트)
- ▶ 09월 03일 : 제1회 청년성가대 ‘도미니꿈’ 발표회
- ▶ 10월 12일 : 솔로몬회 첫 모임 (1일 피정)



이임사

안녕히 계십시오. 그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압구정1동 본당의 소임을 무사히 마치고, 주교님의 명을 받아 본당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고, 이제 많은 분들과 헤어집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감정이 교차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신설본당에 첫 주임신부로 부임해서 나름대로 부족한 능력으로 노력했지만, 아버지 하느님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으면 쉽지 않았을 5년 7개월이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과 함께함이 있었기에 이렇게 기쁜 맘으로 다음의 만남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본당을 떠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저의 부족함에 대해 용서를 청하고 싶습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남겨진 것은 아름다운 추억과 아쉬움뿐이라고 했던가요. 본당 사제로서 여러분에게 좀 더 열심히 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절감하며 용서를 청합니다. 비록 노력은 하였지만 알게 모르게, 또 저의 의지와는 다르게 상처를 드린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혹 저의 부족한 언행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형제, 자매님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청합니다. 너그러이 용서하십시오.

또한 가진 것이라고는 젊은 패기의 무모함뿐이었던 저를 믿고 따라 주신 본당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당 사목의 협조자로서 저의 큰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 성전 건립이라는 중차대한 일뿐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본당 행사에 솔선 수범하여 앞장서시고 저의 용기를 북돋아 주신 소병희 요셉 총회장님과 사목협의회 회장단 및 모든 사목 위원님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본당의 구석구석을 돌보시며 저의 부족함을 메워 주신 이향복 수산나 여성 총구역장님, 김용성 바오로 총구역장님과 모든 남녀 구역장님들, 반장님들, 모든 단체 임원님들, 전례의 차질이 없도록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꼼꼼히 챙겨주시던 제대 봉사자들과 전례단원들, 저를 위해 매일 묵주알을 굴리며 기도 바쳐 주신 할아버님, 할머님들과 교우분들, 청소년 사목에 열과 성을 다해 협조해 준 주일학교 선생님들, 놀고 싶은 것 참고 미사를 위해 달려 와 준 복사단들, 제가 온 마음과 몸을 다해 사랑해 주고 싶은 주일학교 청소년 및 어린이들, 그리고 본당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 또한 압구정1동 본당의 모든 기억들을 아름답고, 행복하게만 남기고 가렵니다. 그리고 훗날 어디서 다시 만나더라도 반갑고 기쁘게 웃으며 손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곳에서의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항상 주님 안에 행복한 나날 되소서.

(새하늘새땅 2004년 9월호 이임사)



소원석 신부님 이임

소원석 신부님 이임 (2004. 09. 21)

본당 초대 주임으로 부임하여 5년 7개월 동안 재임하셨던 소원석 (가브리엘) 신부님은 압구정1동 성당을 떠나 안식년에 들어가셨으며, 2005년 10월부터 서울대교구 시흥동 본당 주임신부님으로 재임하고 계신다.



오늘의 생자
1월 4일
1월 4일 215
0
1월 174 176
0
총 39



부임인사

우리 만남은.....

오늘 처음 저와 여러분이 만났으니, 먼저 '만남' 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열어 볼까 합니다. 우리 인생은 갖가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경험하는데, 그 셀 수 없는 만남 속에는 결코 쉽게 잊을 수 없는 만남과 이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만남과 이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의 만남도 여러분과 제가 '쉽게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만남' 이 되도록 욕심을 내어봅니다. 쉽게 잊혀지는 만남이든, 쉽게 잊혀지지 않는 만남이든 만남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과,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작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만남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 가이 없는 하느님 사랑을 누리는데 작은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화를 이 땅에 심는데 작은 연장이 되고 싶습니다. 행여 힘들어 주저 앉으려 할 때 "아직 안돼!"하고 붙들어주는 작은 손길이고 싶습니다.

아제 저는 믿는 이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가득히 내리시는 하느님의 작은 도구로 남고 싶습니다. 찬미와 감사를 받아야 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 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저 혼자서 꿈을 꾸면 그것은 한갓 꿈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꿈을 꾸면 그것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하늘새땅 2004년 12월호 부임사 중 발췌)

정병조 신부님 부임 (2004. 09. 21)

2008년 06월 29일 신부님 영명축일 때의 사진입니다.

제3기_확산기 (성전 봉헌 이후 ~ 본당 설립 10주년)

| 141



제11지구 연도 경연대회

제11지구 연도 경연대회 (2004. 10. 24)

11지구 8개 본당이 참여한 연도경연대회를 위하여 레지오를 중심으로 한달간 밤늦게까지 연습한 결과 우리 본당은 준우승을 거두었다. 경연대회가 끝난 후 준우승을 한 데 대한 아쉬움보다 연습과정을 통해 신앙공동체로서 굳은 단결력을 확인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값지다고들 하였다.

(새하늘새땅 2004년 12월호 기사)

UP! TG&JO 수일·평일 미사

2004. 12. 6.

평일미사	오전 6:00(토요일 제외) 10:00(월요일 제외)
토요특전	오후 4:00(초등부), 7:00
주일미사	오전 8:00, 9:00(중·고등부), 11:00(교종), 오후 5:00(중·고등부), 9:00(교종)

예수님을 이끄는 청년 사목 그룹
천주교 청년 그룹 1



한정수 (베드로) 신부님 부임

한정수 (베드로) 신부님 부임 (2004. 11. 30)

우리 본당 첫 보좌신부님인 한정수 (베드로) 신부님이 부임하시던 날.
한신부님은 초등부 및 중고등부를 맡아 활발한 사목 활동을 하셨다.



제1회 어르신 잔치

제1회 어르신 잔치 (2005. 05. 01)

본당 어르신 잔치를 위해 오신 서강대학교 석좌교수 정의채 (바오로) 몬시뇰님의 미사 집전 모습







2005년 5월 1일(주일), 본당에서는 성모의 달을 맞아 경로사상을 일깨우고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어르신 잔치’를 가졌다. 이날 은퇴사제이신 정의채(바오로) 몬시뇰님께서 11시 미사를 집전하셨으며, 미사 후 동네 어르신 100여분을 모시고 소성당에서 뷔페로 점심식사를 대접하였다. 1시부터는 한국의 재즈 1세대인 ‘재즈파크’를 초대하여 대성당에서 재즈 연주회를 가졌다. ‘재즈파크’(대표: 신관웅 스테파노, 피아노)는 딕시랜드 음악을 주로 연주하며 40여년 이상을 활동해 온 분들이다. 이날 흥겨운 어르신 잔치는 3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새하늘새땅 2005년 6월호 기사)



김지훈 신학생 부제 서품식

김지훈 신학생 부제 서품식 (2005. 07. 07)

본당에서 학사로 계시던 김지훈 신학생 (현재 신당동 본당 보좌)이 부제 서품을 받았다.
사진은 서품 축하식에 참가한 본당 교우들과 함께 한 모습.





복사단 가족 캠프

복사단 가족 캠프 (2005. 08. 06 ~ 08. 07) 경기도 가평 푸른누리 수련원

복사단에서는 2005년 8월 6일(토) ~ 7일(일) 1박 2일로 부모님과 함께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한 푸른누리 수련원에서 캠프를 하였다. 본 캠프에는 복사 30여명과 부모님이 함께 참가하여 매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새하늘새땅 2005년 9월호 기사)









청소년 캠프

청소년 캠프 (2005. 08. 19 ~ 08. 21) 강원도 속초시 춘천교구 설악동 본당 물치 공소

본당 청년연합회에서는 8월 19일(금)부터 21일(일)까지 2박 3일간 춘천교구 설악동 본당 물치 공소 (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여름 캠프를 가졌다. 30여명이 참가한 본 캠프에는 한정수 보좌신부님, 김지훈 부제님이 함께 하셨다.

캠프 기간 중 비가 많이 내려 프로그램은 주로 실내에서 진행되어 캠프라기보다는 피정의 시간이 되어 신심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한 보좌신부님의 사랑과 용서를 주제로 한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강론은 참가자들에게 자신과 주님의 관계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주셨다.

(새하늘새땅 2005년 9월호 기사)





본당 첫 수녀님 부임 시기

2006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가 1,38)

First Nuns

〃

2006년 2월 26일,
본당에 처음으로 수녀님이 부임하시고,
7월 7일에는 본당 출신 김지훈 부제가 사제 서품을 받는다.

〃

2006년은 우리 본당에 처음으로 수녀님들이 부임하시는 해였다. 본당 창립 이후 수녀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자매님들이 많은 역할을 대신해 주셨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수녀님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4년 12월부터 수녀님 파견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서 두 분의 수녀님을 파견하셨다. 이에 조카톨리나 원장수녀님과 한노아 수녀님께서 2월 26일 부임하여 본당 사목 활동을 하시게 된다.

7월 7일에는 본당 출신 사제 1호인 김지훈 부제가 드디어 사제로 서품되는 영광을 안게 되어 우리 본당으로서는 또 한번 큰 축복을 안게 된다.

11월 21일에는 본당 초대 보좌로 2년 동안 주일학교와 청소년 사목을 위해 애써 주시던 한정수 (베드로) 신부님께서 이임하셨다. 한신부님은 신설된 의정부 교구로부터 파견되어 우리 본당에서 근무하셨고, 이임 후 다시 소속 교구로 복귀하였다. 후임으로는 남상근 (라파엘) 신부님이 부임하여 활발한 사목활동을 전개하셨다.



2006년

주요연혁

- ▶ 02월 26일 : 본당에 수녀원 진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 ▶ 03월 08일 : 솔로몬회 모임
- ▶ 03월 20일 :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님 (전주교구장) 본당 방문 (사순절 특강)
- ▶ 04월 30일 : 제2회 어르신 잔치 (김옥균 주교님)
- ▶ 05월 06일 : 제8회 성모의 밤
- ▶ 07월 07일 : 김지훈 (베드로) 司祭 敘品
- ▶ 09월 23일 : 견진 성사 (김운회 주교님 주례, 수혜; 112명)
- ▶ 11월 21일 : 한정수 (베드로) 신부님 이임
- ▶ 11월 21일 : 제2대 보좌 남상근 (라파엘) 신부님 부임
- ▶ 12월 05일 :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 (대전교구장) 본당 방문 (대림절 특별 강론)
- ▶ 12월 29일 : 봉사자 송년의 밤 행사

본당 첫 수녀님으로 부임하신
조카롤리나 원장수녀님 (우측)과 한노아 수녀님 (좌측)

제3기_확산기 (성전 봉헌 이후 ~ 본당 설립 10주년)

159





이병호 주교님 특강

2006년 3월 20일 교의신학 박사인 이병호 (빈천시오) 주교님 (전주교구장)께서
“주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시편 119)라는 주제로 사순절 특별 강론을 하셨다.

“주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시편 119)





김지훈 부제 사제 서품식

김지훈 (베드로) 신부님 (우측에서 두 번째)은 본당 출신 첫 사제로서 2004년 3월 시종직 수행에 이어 2005년 7월 부제품을 받고 2006년 7월 7일 사제품을 받았다



이날 압구정동 본당에서 김지훈 신부가 신학교에 입학할 당시의 주임신부님이셨던 나원균 (바오로) 몬시뇰 (좌측)과 정병조 (베드로) 신부님 (우측)이 함께 하여 축하해주셨다.







이해인 수녀님 특강

2006년 10월 31일 이해인 (클라우디아) 수녀님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께서
“사랑의 작은 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다.

“사랑의 작은 길”





한정수 (베드로) 신부님 이임

한정수 (베드로) 신부님께서는 2004년 11월 우리 본당에 초대 보좌로 부임하여 2년 동안 사목활동을 하신 후 의정부교구 (일산 대화동 성당)로 복귀하셨다. 현재 경기도 평내 본당 주임으로 활발한 사목활동을 하고 계신다.



남상근 (라파엘) 신부님 부임

남상근 (라파엘) 신부님께서는 서울대교구 성소국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11월 2대 보좌로 부임하셨다. 우리 본당에서 약 1년간 계시면서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셨다. 현재 국내 수학 중이다.

압구정 1동 성당



가정의 모후 Cu.

2005년 1월 6일



‘가정의 모후’ 꾸리아 창립식 ↑

‘가정의 모후’ 꾸리아는 2005년 1월 6일 창단되었다. 창단 당시 5개 남성 레지오, 1개 직장 여성 레지오, 2개 청년 레지오 등 8개 빼레시디움으로 시작하였으며, 2009년 현재 총 9개 빼레시디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의 모후 연차 총친목회

연차 총친목회 ↗

가정의 모후 꾸리아 연차 총친목회 (2006. 12. 03)

2006년 가정의 모후 꾸리아 연차 총친목회에서 각 뼈레시디움 별로 장기자랑을 하였다.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 특강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 특강 (2006. 12. 05)

2006년 12월 5일, 대전교구장이신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께서
“나눔과 섬김,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다.



성당

의 밤



봉사자 송년의 밤

봉사자 송년의 밤 (2006. 12. 29)

2006년 12월 29일 (금) 오후 7시부터 지하 2층 주차장을 개조한 성당 특설 연회장에서
봉사자들의 단체 공연과 개인 장기자랑 등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



【각 뿐레시디움별 장기자랑】



200인 봉현 운동 전개 시기

2007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로마 10,15)

Dedicate 200
New Catholics

“

2007년 2월 200인 봉헌 운동을 전개한다.

”

2007년, 우리 본당 교세 확장을 위한 200인 봉헌 운동이 시작되었다.

본당 새 신자 200명을 목표로 주임신부님을 비롯한 수도자, 평신도가 혼연일체가 되어 달려나가는 해였다. 우리 본당 관할구역의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기존 종교의 틀이 비교적 부동적인 이곳에 200명의 새 신자를 입교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눈 감으면 기도하고 눈 뜨면 선교하는 공동체’를 사목목표로 설정하고 지역선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54일 매일 미사 참례와 함께 성체 조배, 웃음 특강, 본당 구역 미사 봉헌, 그리고 방문선교전략 특강 등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또한 신자들은 모든 미사와 모임 때마다 ‘200인 봉헌 기도문’을 바쳤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많은 신자들의 기대 속에서 4월 15일 교중미사 중 예비신자 입교식을 열었다. 이날 입교식에서 봉헌된 새 신자들은 ‘200인 봉헌운동’의 첫 번째 결실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2월에는 우리 본당 첫 수녀님으로 사목활동을 하셨던 한노아 수녀님께서 이임하고, 후임으로 박아드리아 수녀님이 부임하셨다. 또한 11월에는 1년 동안 청소년 사목을 위해 열심히 활동했던 남상근 (라파엘) 신부님이 이임하시고, 후임으로 신현우 (안토니오) 신부님이 용산 본당에서 이동하여 본당 제3대 보좌로 부임하시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께 제단자
200년을 봉헌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께 제단자
200년을 봉헌합니다

2007년

주요연혁

- ▶ 01월 20일 : 서종문 (토마스) 사목협의회장 취임 (4대)
- ▶ **01월 28일 : 200인 봉헌 운동 전개**
- ▶ 02월 24일 : 한노아 수녀님 이임
- ▶ 02월 24일 : 박아드리아 수녀님 부임
- ▶ 03월 04일 : 정월대보름 윷놀이 한마당
- ▶ 04월 29일 : 제3회 어르신 잔치 (이스턴녹스 특별공연)
- ▶ 05월 12일 : 제9회 성모의 밤 행사
- ▶ 05월 18일 : 혼인갱신 미사
- ▶ 05월 31일 : 제1회 오르간 연주회
- ▶ 11월 20일 : 남상근 (라파엘) 신부님 이임
- ▶ 11월 20일 : 제3대 보좌 신현우 (안토니오) 신부님 부임
- ▶ 조상을 위한 위령기도 : 2월, 9월, 11월



정월대보름 윷놀이 한마당

구역 미사를 마무리하며 윷놀이 한마당 개최 (2007. 03. 04)

- 일시 및 장소 : 2007년 3월 4일 낮 12시 30분, 지하 2층
- 참 가 : 본당 전체 교우
- 경기방법 : 구역 (14개 팀) 및 단체 (6개 팀) 대항





혼인갱신식

혼인갱신식 (2007. 05. 18)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우리 본당에서는 부부의 혼인 서약을 되새기는 혼인갱신식이 열렸다. 2007년 5월 18일 8시 미사를 봉헌, 74쌍의 부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지 교환, 영상물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성가정을 이뤄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교황대사 애밀 폴 체릭 대주교가 축하메시지를 보내 "모든 부부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며 "시랑과 부부의 친교를 더욱 굳건하게 하고 새롭게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혼인갱신식에 참석한 부부들은 19일과 20일 이를 동안 속초 카리타스 피정의 집에서 부부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도 가졌다.





제1회 오르간 연주 발표

제1회 오르간 연주 발표 (2007. 05. 31)

- PROGRAM -

- D. Buxtehude.....Praludium und Fuge fis moll / 정희영 (베로니카)
F. Mendelssohn-Bartholdy.....Sonata V D-Dur / 편재희 (세라피나)
C. Franck.....Prelude, Fugue et Variation, Op.18 / 함경인 (로사)
A. Guilmant.....Sonate in d-moll Op.42 / 고숙희 (로사)
II. Pastorale
III. Finale





남상근 (라파엘) 신부님 이임

남상근 (라파엘) 신부님 이임 (2007. 11. 20)

1년간 본당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수고를 해주신
남상근 (라파엘) 신부님이 국내 수학을 위해 이임하셨다.



신현우 (안토니오) 신부님 부임

신현우 (안토니오) 신부님 부임 (2007. 11. 20)

신현우 (안토니오) 신부님께서는 용산 본당 보좌로 사목 활동을 하다가 우리 본당에 3대 보좌신부님으로 오시어 주일학교 및 청소년 사목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을 하셨다. 현재 하계동 본당 보좌신부님으로 계신다.



M.E 연차 총친목회 및 송년 모임

M.E 연차 총친목회 및 송년 모임 (2007. 12. 08)

본당의 크고 작은 행사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M.E가 총친목회 겸 송년모임을 가졌다.







10주년 준비 시기

2008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루가 18,14)

Preparing
10th Anniversary

“
본당 설립 10주년을 준비하게 된다.
”

2008년은 본당을 설립한지 10년째가 되면서 다음 해에 다가올 10주년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주님의 은총에 보답하고자 10년 동안 꾸준한 교세 확장을 이루하였으며, 본당 차원에서 한 차원 성숙되어 가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평신도로서는 첫 선교사 파견이 이루어졌고, 주한 교황대사 및 폐루대주교께서 본당을 방문하시어 미사를 봉헌하였다.



2008년

주요연혁

▶ 03월 16일 : 평신도 선교사 첫 파견

- 김희경 아우구스티노 (춘천교구 양구본당 동면 공소)
- 이형발 도미니코 (춘천교구 양구본당 남면 공소)

▶ 03월 30일 : 이경표 (다비드) 사목협의회장 취임 (4대)

▶ 04월 06일 : 페루 주교회의 의장 (헥토르 미구엘) 대주교 본당 방문

▶ 05월 14일 : 김운회 (루카) 주교님 본당 방문

▶ 05월 16일 : 조선족 가무단 공연

▶ 05월 17일 : 제10회 성모의 밤 행사

▶ 08월 19일 : 박아드리아 수녀님 이임 (진해 여좌동 성당으로 이동)

▶ 08월 19일 : 오벨베뚜아 수녀님 부임

▶ 09월 06일 : 제2회 청년성가대 ‘도미니꿈’ 성가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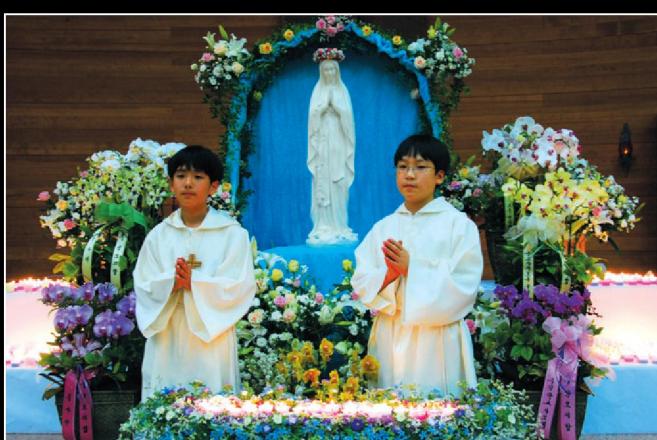
▶ 10월 16일 : 제2회 오르간 연주회

▶ 11월 23일 :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Osvaldo Padilla) 대주교 본당 방문



성모의 밤

제10회 성모의 밤 행사 (2008. 05.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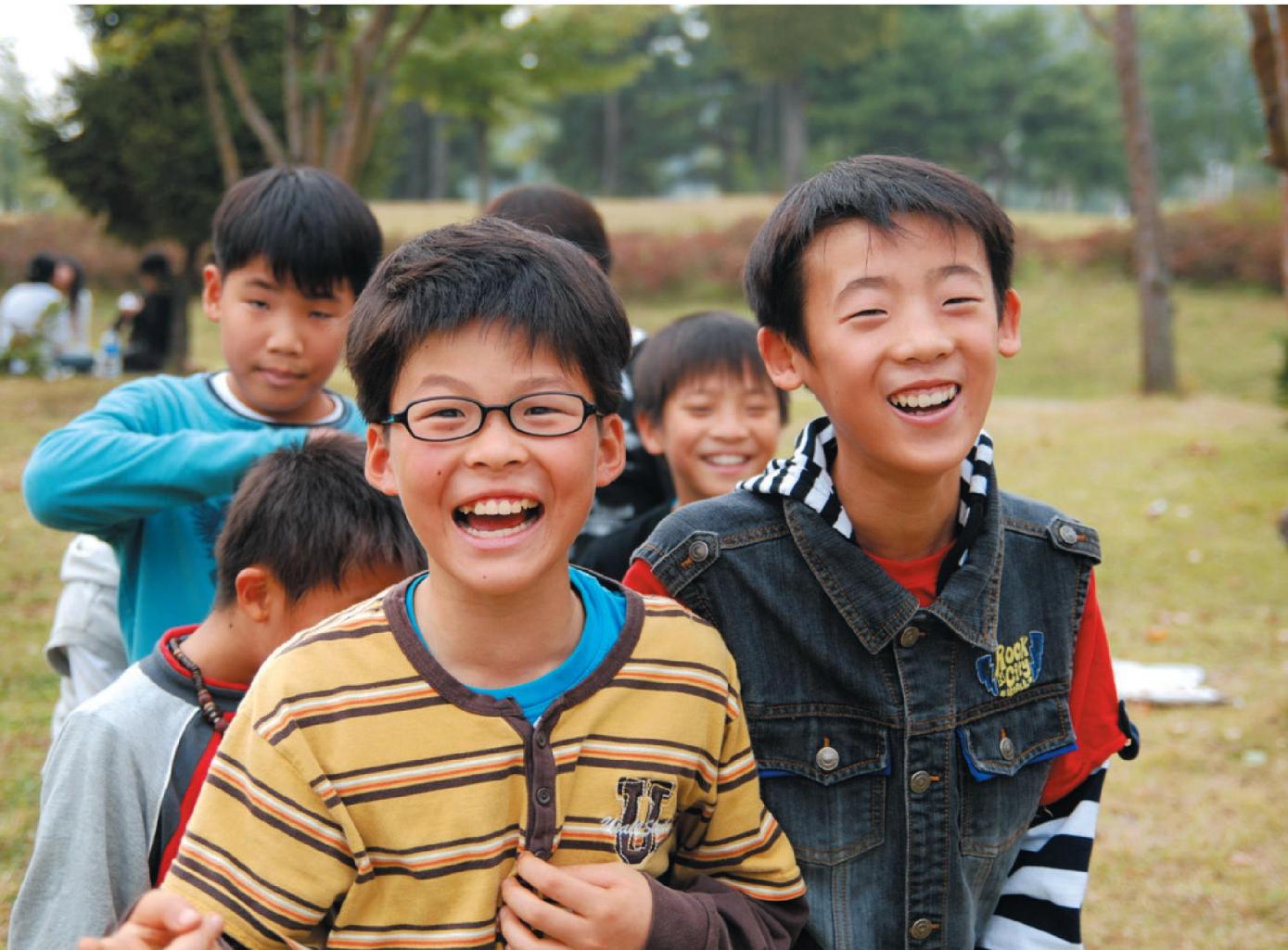
↑ [체육대회 (2008. 06. 29)]

꿈나무 마을 봉사활동

우리 본당의 청년연합회는 매월 셋 째주 꿈나무 마을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08년 3월부터 봉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매달 20명 이상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 [월드컵 공원 (2008. 10. 19)]



인간이
무엇
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신니까?



도미니꿈 성가 발표회

제2회 청년 성가대 ‘도미니꿈’ 성가 발표회 (2008. 09. 06)

본당 청년 성가대 ‘도미니꿈’은 1999년 4월 STAY(Sing Together Apgujeong Youth)란 이름으로 출범하였다. 현재의 이름은 2003년 1월 초대 주임이신 소원석 (가브리엘) 신부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지어주셨다.

(새하늘새땅 2005년 9월호 기사)



내령기도

이다."

(1,25)

동성드

부



위령기도

조상을 위한 위령기도 (2008. 09. 07)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교종미사 후에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기억하며
본당 공동체가 함께 위령기도를 바쳤다.





제2회 오르간 연주 발표

제2회 오르간 연주회 (2008. 10. 16)

- * D. Buxtehude.....최혜영 (프리스카)
Praludium und Fuge d-moll
- * J. S. Bach.....임혜경 (아네스)
Toccata und Fuge d-moll BWV 565
- * L. Boellmann.....주현주 (안나)
Suite Gotique Op.25
- * A. Guilmant.....김영운 (에스텔)
Sonate in d-moll Op.42
Introduction



주한 교황대사 Osvaldo Padilla 대주교 본당방문 (2008. 11. 23.)

주한 교황대사 본당 방문

주한 교황대사 본당 방문 (2008. 11. 23)

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Apostolic Nuncio to Korea, Archbishop Osvaldo PADILLA)께서 11월 23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 우리 본당을 방문하시어 11시 교종미사를 집전하며 신자들을 격려하셨다.



제3대 박상수 (바오로) 주임신부님 부임
및 본당 설립 10주년 시기

2009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17,21)

Father Paulus Park

“

2009년 5월, 우리 본당은 설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되며,
박상수 (바오로) 신부님께서 3대 주임으로 부임하신다.

”

2009년은 우리 본당이 설립된지 10주년이 되는 해였다. 1999년 2월 18일 압구정 성당으로부터
분당되어 압구정2동 성당이 창립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10년 동안 우리는 새 성전을
건립하여 봉헌하는 등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총에 보답하고자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감격스러운 1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2월 17일 본당 2대 주임 정병조 (베드로) 신부님이 이임하시고, 3대 주임으로 박상수 (바오로)
신부님께서 부임하시어 새로운 1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그리고 2월 19일에는 4년 동안 초대 원장수녀님으로 근무하시던 조카를리나 수녀님이 이임하시고
2대 원장수녀님으로 김마태오 수녀님이 부임하신다.

9월, 구역활성화를 위한 구역 미사를 사직하였으며, 10월부터는 남성교우들의 평일 미사 참여
확산을 위하여 매주 목요일 7시 반부터 저녁 미사를 신설하였다.

10월 10일에는 교우들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당 설립 이후 처음으로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약 50여명의 교우들이 참여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0월 18일에는 본당 복사단 가족들이 압구정 성당 복사단 가족과 함께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12월 1일 본당 3대 보좌신부로 근무하였던 신현우 (안토니오) 신부님께서 이임하시고, 손경락
(사도요한) 신부님께서 명동성당에서 오시어 본당 제4대 보좌신부로 부임하게 된다.

12월 13일에는 본당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구역별 성가대회를 개최하였다.



2009년

주요연혁

- ▶ 02월 17일 : 정병조 (베드로) 신부님 이임
- ▶ 02월 17일 : 제3대 주임 박상수 (바오로) 신부님 부임
- ▶ 02월 19일 : 조카롤리나 초대 원장수녀님 이임
- ▶ 02월 19일 : 김마태오 제2대 원장수녀님 부임
- ▶ 05월 16일 : 제11회 성모의 밤 행사
- ▶ 05월 17일 : 복사단 가족 체육대회
- ▶ 05월 24일 : 본당 설립 10주년 기념 ‘떡’ 배포
- ▶ 06월 07일 : 성소후원회 창설
- ▶ 06월 27일 : 선목회 모니카회 합동 모임
- ▶ 07월 04일 : 가정의 모후 야외 행사
- ▶ 07월 26일 : 동서울지역 교구장대리 김운희 (루카) 주교님 본당 방문
- ▶ 07월 27일 : 중고등부 제주도 캠프
- ▶ 08월 21일 : 청년부 여름 캠프
- ▶ 08월 23일 : 복사단 가족 캠프
- ▶ 09월 05일 : 제3회 청년성가대 ‘도미니꿈’ 성가발표회
- ▶ 09월 18일 : 구역 미사 시작
- ▶ 10월 01일 : 평일 저녁 미사 시작 (매주 목요일 19시 30분)
- ▶ 10월 10일 : 본당 교우 친선 골프대회 (강원도 둔내 오스타 컨트리 클럽)
- ▶ 10월 18일 : 복사단 가족 체육대회
- ▶ 10월 21일 : 제3회 오르간 연주회
- ▶ 11월 01일 : 예비신자 입교식
- ▶ 12월 01일 : 신현우 (안토니오) 신부님 이임 (하계동 성당으로 이동)
- ▶ 12월 01일 : 손경락 (사도요한) 신부님 부임
- ▶ 12월 13일 : 본당 설립 10주년 기념 구역별 성가대회

내 사랑
안에
거울려라
(으한 15.9)





박상수 (바오로) 신부님 부임

박상수 (바오로) 신부님 부임 (2009. 02. 17)

2009년 2월 17일 본당 제3대 주임으로 박상수 (바오로) 신부님께서 부임하셨다.
신부님은 신학교 시절 암구정 본당에서 지낸 관계로 우리 본당에 대해 깊은 친근감을
가지고 열정적인 사목활동을 하시게 된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17,21)









[시립 꿈나무 마을 봉사활동 ; 남산 (2009. 01. 20)]



[시립 꿈나무 마을 봉사활동 ; 어린이대공원 (2009. 02. 19)]



복사단 가족 체육대회

복사단 가족 체육대회 (2009. 05. 17) 청담초등학교

복사단 가족들이 신천동 성당 복사단 가족들과 함께 청담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가졌다.
경기 후 참석자 전원이 모여 단체 촬영을 한 모습.





이 날 양 본당의 열띤 응원전과 함께 복사단 및 아버지들의 축구시합, 그리고 어머니들의 피구시합이 열렸으며, 저녁 식사는 본당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뷔페를 즐기며 친교를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사단 가족 모임

복사단 가족 모임 (2009. 06. 27)

복사단 아버지 모임인 선목회 및 어머니 모임인 모니카회의 OB 및 현 회원들이 오랜만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주임신부님이 함께 하신 저녁 식사에 이어 Moon Glow로 자리를 옮겨 재즈 공연을 함께 관람하였다.







박상수 주임신부님 영명 축일 행사

주임신부님 영명 축일 행사 (2009. 06. 28)

박상수 (바오로) 주임신부님께서 우리 본당에 부임하신 후 첫 번째 영명 축일을 맞이하여 교우들이 축하연을 마련하였다.

이날 우리 본당에 손님신부님으로 와계시는 이상철 (안드레아) 신부님 (좌측)과 김광근 (도미니코) 신부님 (우측)이 함께 자리를 하여 축하해 주셨다.





순교자의 모후 꾸리아

‘순교자의 모후’ 꾸리아는 우리 본당 설립과 함께 1999년 6월 20일 창립되었다.
당시 총 10개 빠레시디움으로 시작하였는데 여성 8팀, 남성 1팀, 그리고 청년 1팀으로 구성되었다.
2009년 현재 총 14개 빠레시디움으로 이루어져 있다.

▶ 빠레시디움 활동 (여성)



▶ 빠레시디움 활동 (남성)





가정의 모후 꾸리아

가정의 모후 월례 회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이 함께 하였다.

가정의 모후 꾸리아는 2005년 2월 27일 창단되어, 현재 남성 6개 빼레시디움,
직장인 중심의 여성 빼레시디움 1개, 그리고 청년 빼레시디움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주일학교

은총잔치

주일학교 은총잔치 (2009. 07. 11)

초등부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교사단이 모여 다양한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시립 꿈나무 마을 봉사활동 ; 중앙박물관 (2009. 07. 21)]







김운회 (루카) 주교님 본당 방문

동서울지역 교구장대리 김운회 (루카) 주교님 본당 방문 (2009. 07. 26)

김운회 주교님께서 사목 방문 차 본당을 방문하여 교종 미사를 집전하시고,
본당 사목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지하 소성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셨다.





【솔로몬회 (2009. 06. 10) ; 오 벨베뚜아 수녀님과 함께 공예 작품 활동을 한 후 함께 한 모습】



【솔로몬회 (2009. 07. 08) ; 솔로몬회 회원들이 꼴라쥬 (collage) 작품을 만들고 있는 모습】



중고등부 제주도 여름 캠프

중고등부 여름 캠프 (2009. 07. 27 ~ 07. 31) 제주도

중고등부 학생과 교사단은 본당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에 4박 5일동안 캠프를 가서 갖가지 행사를 하며 매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 중고등부 교사단 】







복사단 가족 여름 캠프

복사단 가족 여름 캠프 (2009. 08. 23) 경기도 가평 푸른누리 수련원

본당 복사단과 선목회, 모니카회 회원들이 주임신부님, 오벨베뚜아 수녀님, 그리고 학사님과 함께 경기도 가평 푸른누리 수련원으로 캠프를 가서 수영 및 축구 경기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캠프파이어를 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 오벨베뚜아 수녀님 】

【 김택훈 학사님 】



도미니꿈 성가 발표회

청년 성가대 도미니꿈 제3회 발표회 (2009. 09. 05)

도미니꿈은 2005년 제1회 발표회에 이어 2008년 제2회 발표회,
그리고 2009에는 제3회 발표회를 가졌다.



제3기_확산기 (성전 봉헌 이후 ~ 본당 설립 10주년) | 237



교우 친선 골프대회

교우 친선골프대회 (2009. 10. 10) 강원도 둔내 오스타 컨트리 클럽

본당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골프대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교우들은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발휘하였으며,
저녁 식사 후 다양한 상이 시상되었다.







[주임신부님의 멋진 티샷 모습]



【교우들의 티샷 모습】



신현우 (안토니오) 신부님 이임

신현우 (안토니오) 신부님 이임 (2009. 12. 01)

2년간 본당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수고를 해주신 신현우 (안토니오) 신부님이 이임하셨다. 현재 하계동 본당에서 근무하고 계신다.



손경락 (사도요한) 신부님 부임

손경락 (사도요한) 신부님 부임 (2009. 12. 01)

손경락 (사도요한) 신부님께서는 명동주교좌성당에서 사목 활동을 하시다가
우리 본당에 4대 보좌신부님으로 오셨다.



[나오스 성가대]



[1구역]



[4구역]



[5구역]

구역별 성가 경연잔치

구역별 성가 경연잔치 (2009. 12. 13)

본당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고 자축하고자 교종 미사 후 약 500명이 넘는 교우들이 모여 구역별 성가 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화합과 일치를 도모하였다.



[2구역]



[3구역]



[6구역]



[7구역]

“하나되게 하소서”

이날 교우들은 지정곡 카톨릭 성가 399번 ‘하나되게 하소서’ 와 자유곡 1곡을 선보이며 두달간 같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자랑했다. 특히 자유곡을 부를 땐 반짝이 의상, 선글라스, 가발, 한복 등 다양한 의상과 소품을 활용해 잔치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또 본당 ‘나오스성가대’ 연주와 재즈 피아니스트 신관웅(스테파노)씨 특별 초청공연으로 성가 경연잔치를 축하했다.

이날 행사 마지막에 박상수 주임신부님께서는 교우들 성가에 ‘사랑해 당신을’ 이란 노래로 화답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본당을 꾸려나가자”고 교우들을 격려하셨다.



[주임신부님]



[보좌신부님]



[원장수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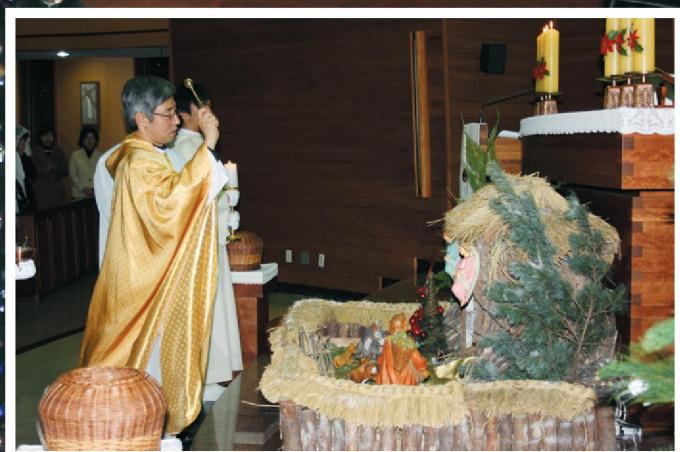
[신관웅 재즈밴드]



성탄전야 미사

성탄전야 미사 (2009. 12. 24)

밤 9시, 지하 소성당까지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교우들이 모여 성탄전야 미사를 드렸다.
특히 이날 미사가 끝난 후 막걸리파티를 가지며 참석한 모든 교우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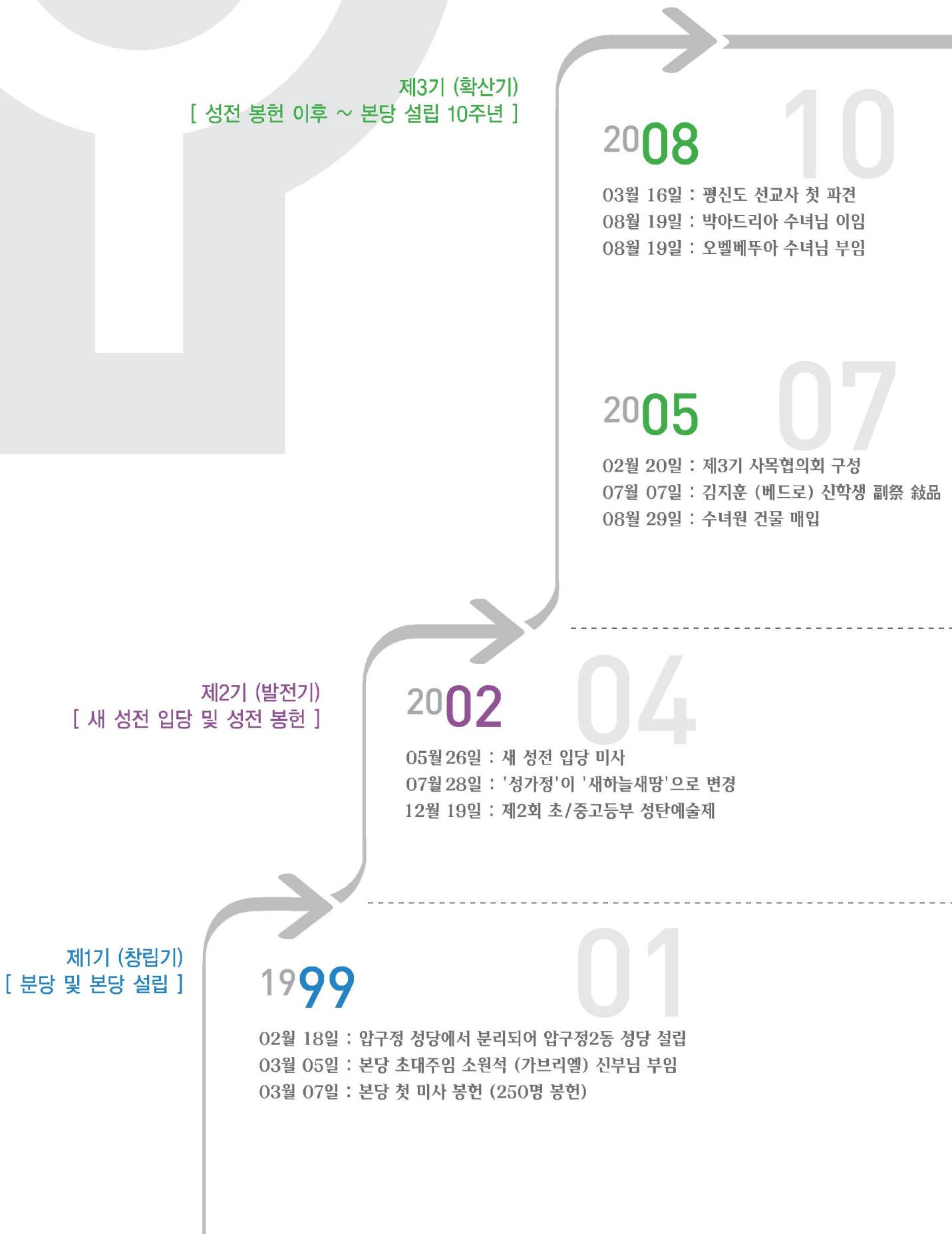




압구정1동 성당 10년사 화보집 -부록

Apgujeonql-dong Catholic Church
10th Anniversary Photo Album

〈본당 연혁〉



Milestone →

2009

11

- 02월 17일 : 정병조 (베드로) 신부님 이임
02월 17일 : 제3대 주임 박상수 (바오로) 신부님 부임
02월 19일 : 조카롤리나 초대 원장수녀님 이임
02월 19일 : 김마태오 제2대 원장수녀님 부임
06월 07일 : 성소후원회 발족
12월 13일 : 구역별 성가 경연대회

2006

08

- 02월 26일 : 본당에 수녀원 진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07월 07일 : 김지훈 (베드로) 司祭 敘品
11월 21일 : 한정수 (베드로) 신부님 이임
11월 21일 : 제2대 보좌 남상근 (라파엘) 신부님 부임

2003

05

- 02월 23일 : 제2기 본당사목협의회 구성
08월 17일 : 엠마오(방법) 봉사대 발대식(25명)
11월 16일 : 본당 구역별 연도 경연대회

2000

02

- 03월 05일 : 본당 창립 1주년 미사 및 성전 부지 매입
04월 23일 : 초대 '사목협의회' 창립 (회장 소병희 요셉)
11월 11일 : 본당 소식지 '암구정2동 성당 소식' 창간호 발간
11월 30일 : 강남구청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공식 허가 획득

2010

12

- 01월 03일 : 신임 사목협의회 구성
02월 22일 : 오렐베루아 수녀님 이임
02월 22일 : 김아브라함 수녀님 부임
02월 28일 : 정월대보름 윷놀이 한마당

2007

09

- 02월 24일 : 한노아 수녀님 이임
02월 24일 : 박아드리아 수녀님 부임
03월 04일 : 정월대보름 윷놀이 한마당
11월 20일 : 남상근 (라파엘) 신부님 이임
11월 20일 : 제3대 보좌 신현우 (안토니오) 신부님 부임

2004

06

- 05월 23일 : 새 성전 봉헌 미사
09월 21일 : 초대 주임 소원석 (가브리엘) 신부님 이임
09월 21일 : 제2대 주임 정병조 (베드로) 신부님 부임
11월 30일 : 초대 보좌 한정수 (베드로) 신부님 부임

2001

03

- 02월 19일 : 새 성전 착공
05월 27일 : '한마음대축제'
09월 21일 : 본당 명칭 변경
(암구정2 성당 → 암구정1 성당)
10월 21일 : 새 성전 상량감사 미사 봉헌

〈역대 주임신부님〉

	성 명	재임기간	현 재
[초 대]	소원석 (가브리엘)	1999. 03. 05 ~ 2004. 09. 21	시흥동 본당 주임
[2 대]	정병조 (베드로)	2004. 09. 21 ~ 2009. 02. 17	로마 한인신학원 재정담당
[3 대]	박상수 (바오로)	2009. 02. 17 ~ 현재	압구정1동 본당 주임

〈역대 보좌신부님〉

	성 명	재임기간	현 재
[초 대]	한정수 (베드로)	2004. 11. 30 ~ 2006. 11. 21	경기도 평내 본당 주임
[2 대]	남상근 (라파엘)	2006. 11. 21 ~ 2007. 11. 20	국내 수학
[3 대]	신현우 (안토니오)	2007. 11. 20 ~ 2009. 12. 01	하계동 본당 보좌
[4 대]	손경락 (사도요한)	2009. 12. 01 ~ 현재	압구정1동 본당 보좌

〈역대 원장수녀님〉

	성 명	재임기간	현 재
[초 대]	조 카롤리나	2006. 02. 26 ~ 2009. 02. 19	제주도 광양 본당
[2 대]	김 마태오	2009. 02. 19 ~ 현재	압구정1동 본당

〈역대 수녀님〉

성 명	재임기간	현 재
한 노아	2006. 02. 26 ~ 2007. 02. 24	
박 아드리아	2007. 02. 24 ~ 2008. 08. 19	
오 벨베뚜아	2008. 08. 19 ~ 2010. 02. 22	
김 아브라함	2010. 02. 22 ~ 현재	압구정1동 본당

〈본당 관할 행정 구역 인구 및 신자수〉

관할구역		압구정1동 구현대아파트, 신사동 일부		
인구수		신자수	구성비 (%)	신자 세대수
21,057명		4,110명	19.2%	1,639세대

[2009년 9월 30일 현재]

〈신자 현황〉

구 분		2009년	2008년	증 감 (%)
신자수	남	1,747명	1,699명	3%
	여	2,363명	2,302명	3%
	계	4,110명	4,001명	3%
주일미사 미사참례자		950명	950명	
예비자		28명	50명	
냉담자		184명	161명	14%

[2009년 9월 30일 현재]

〈신자 증·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9년	2008년	증·감 (%)
증 가 수	세례자	95	102	-7%
	교구내 전입	90	96	-6%
	타교구 전입	71	26	173%
	거주불명 전입	30	16	87%
	계	286	240	19%
감 소 수	교구내 전출	121	138	-12%
	타교구 전출	38	56	-32%
	사망	14	9	55%
	거주불명 전출	-	-	-
	계	459	443	4%

[2009년 9월 30일 현재]

〈건물 현황〉

소재지	지 번	연건평	용 도	비 고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07, 607-7	2,782m ²	성당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2	84.9m ²	사제관 (주임)	신성아파트 901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2	84.9m ²	사제관 (보좌)	신성아파트 401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2	84.9m ²	수녀원	신성아파트 402호

〈단체 및 모임 현황〉

단체명	설립 년월일	회원수									설립목적과 대상	
		2007년			2008년			2009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사목협의회	2000.04.23	26	26	52	37	27	64	37	27	64	본당업무 총괄	
M.E	2005.06.12	29	29	58	32	32	64	32	32	64	가정성화 부부일치	
울뜨레아	2005.02.27	36	38	74	38	40	78	39	42	81	꾸르실료 운동	
전례단	1999.05.22	16	29	45	12	38	50	12	38	50	미사전례 봉사	
선종봉사회	2000.07.07	10	10	20	6	7	13	7	8	15	선종 봉사	
주일학교후원회	2001.03.25	0	10	10	0	15	15	0	15	15	주일학교 후원	
복사단어머니회 (모니카회)	2001.07.08	0	20	20	0	25	25	0	31	31	복사단 후원	
복사단아버지회 (선한목자회)	2001.07.08	20	0	20	-	-	-	38	0	38	복사단 후원	
청년전례단	1999.06	3	11	14	3	10	13	2	7	9	미사전례 봉사	
나오스성가대	1999.03.24	10	25	35	8	23	31	8	24	32	미사전례 봉사	
현화회	1999.03	0	4	4	0	4	4	0	4	4	미사전례 봉사	
제대봉사회	1999.04.13	0	5	5	0	10	10	0	9	9	미사전례 봉사	
성서봉사자모임	1999.10.06	0	10	10	0	7	7	0	7	7	신앙교육, 전례의 생활화	
솔로몬회	2005.10.12	19	53	72	18	53	71	18	53	71	노인의 활성화	
반주단	1999.03	0	10	10	0	11	11	0	11	11	미사전례 봉사	
청년성가대	1999.06	10	18	28	12	19	31	11	17	28	미사전례 봉사	
성찬봉사자회	2000.05.20	12	0	12	12	0	12	12	0	12	미사전례 봉사	
초등부교사회	1999.09.24	0	11	11	0	15	15	0	15	15	주일학교 교리교육	
중고등부교사회	2000.10.09	2	4	6	4	5	9	3	3	6	주일학교 교리교육	
성소후원회	2009.06.07	-	-	-	-	-	-	94	165	259	성소자 후원	

[2009년 9월 30일 현재]

〈꾸리아 및 레지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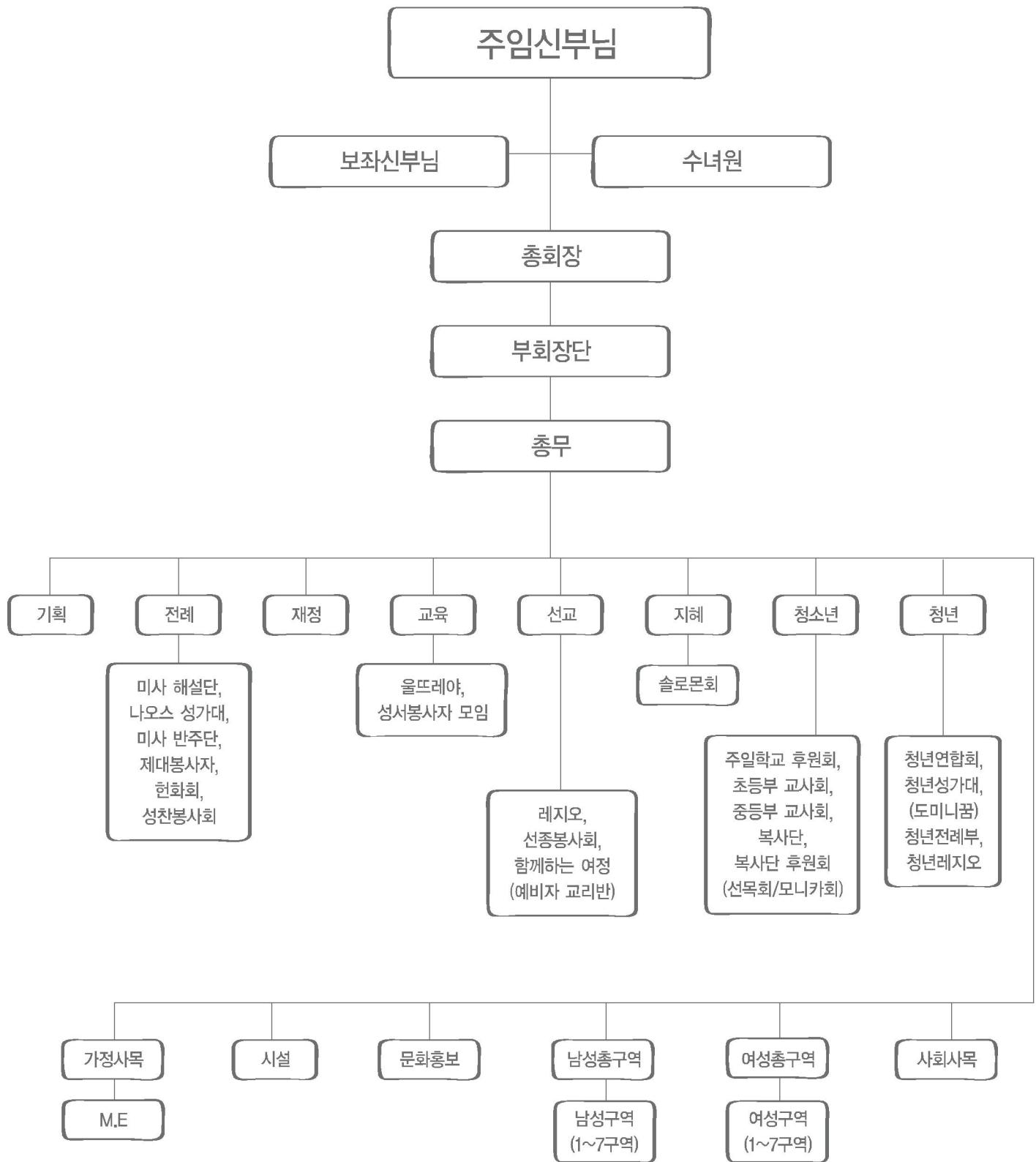
꾸리아	설립 년 월 일	쁘리시디움 수			활동 단원수			협조단원 인원
		남	녀	계	남	녀	계	
순교자의 모후 Cu.	1999.06.20	-	14	14	-	145	145	306
가정의 모후 Cu.	2005.02.27	7	1	8	62	25	87	83

[2009년 9월 30일 현재]

〈본당 사목 계획〉

년도	사목 목표	세부 실천 계획	결과 (구체적인 시행활동)
2007년	눈감으면 기도하고 눈뜨면 선교하는 공동체	1. 소공동체의 활성화 2. 선교하는 공동체 3.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4. 가정사목 강화	· 구역미사 봉헌 · 200인 봉헌 운동 전개 · 아센시오 신앙학교 운영 · 노인사목 강화 · 혼인 간신 미사
2008년	소박한 삶으로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1.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2. 외짜교우 인도 및 예비 신자 선교 3. 청년 단체 중심의 봉사활동	· 선교지향으로 구역별 릴레이 성체 조배 시행 · 청년 봉사활동에 본당 차원의 지원 · 본당, 단체의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수용
2009년	1. 늘 기도하는 공동체 2. 언제나 이웃, 「구역, 반 모임」과 함께 하는 공동체 3.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	1. 가정중심 사목활동 강화 2. 구역 반 모임 활동 강화 3. 청년 봉사 활동 4. 외짜교우 및 냉담자 회두활동 강화 5. 성서교육을 통한 신자 재교육 강화	· M.E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구역, 반 모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청년 봉사 활동의 지속적인 지원 · 레지오를 통한 구역 선교운동 강화 · 구역 미사 봉헌 · 성서 40주간, 그룹성서모임 활성화

〈본당 사목협의회 구성〉



〈역대 사목협의회 회장〉

	성 명	재임기간
[1~2 대]	소병희 (요셉)	2000. 04. 23 ~ 2005. 02. 19
[3 대]	임학언 (바오로)	2005. 02. 20 ~ 2007. 01. 19
[4 대]	서종문 (토마스)	2007. 01. 20 ~ 2008. 03. 29
[5 대]	이경표 (다비드)	2008. 03. 30 ~ 2010. 01. 02
[6 대]	박준용 (토마스)	2010. 01. 03 ~ 현재



〈본당 구역별 해당 주소지〉

구 분	반	해당주소지		구 분	반	해당주소지	
1 구 역	1	현 대 아 파 트	201동	4 구 역	1	71동	
	2	202동	2		72동		
	3	203동	3		73동		
	4	204동	4		74동		
	5	205동	5		75동		
	6	206동 1-6호	6		76동		
	7	207동 7-11호	7		77동		
	8	208동	8		78동		
	9	209동	9		79동		
	10	210동					
	11	211동					
2 구 역	1	현 대 아 파 트	10동	5 구 역	1	80동	
	2	11동	2		81동		
	3	12동	3		82동		
	4	13동	4		83동		
	5	20동	5		84동		
	6	21동	6		85동		
	7	22동	7		86동		
	8	31동	8		87동		
	9	32동					
	10	33동					
3 구 역	1	현 대 아 파 트	23동	6 구 역	1	587-591, 601번지	
	2	24동	2		592-600, 602번지		
	3	25동	3		625-629번지		
	4	51, 52, 53동	4		601, 603-605, 609번지, 현대맨션 1-13동		
	5	54, 55, 56동	5		623, 620번지, 현대맨션 14-23동		
	6	61동	6		606-608, 610-616, 619번지		
	7	62, 65동	7		617-618, 621-625번지, 신성아파트		
	8	63동					
	9	64동					

[화보집 슬로건 ‘주님의 앞뜰에서 보는 신화 (神話)’에 대한 해설]

1. [주님의 앞뜰]은 시편 84장 3절 (“주님의 앞뜰을 그리워하며 이몸은 여위어 갑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향하여 제 마음과 제 몸이 훈성을 자릅니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저희 성전을 [주님의 앞뜰]로 상징하여 항상 주님이 머물고 계시는 곳으로 표현하였으며, 우리 본당 교우들의 주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나타냄과 동시에 성전에 오면 항상 주님을 만나 뵈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神話]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문학>고대인의 사유나 표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
- 2) 신비스러운 이야기
- 3) 절대적이고 획기적인 업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번 우리 본당 10년사 화보집 발간은 위 세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 (神)과 관련된 내용임을 쉽게 전달하고 있으며, 또한 분당 이후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빠른 교세확장을 해나가는 등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노력하여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3. [보는]이라는 표현은 공감각적 (共感覺的)인 효과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신화(神話)’는 ‘이야기’를 뜻하지만 ‘화보’는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리를 들으면 빛깔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본당의 역사가 담긴 이야기를 사진을 통해서 보는 것이며, 즉, ‘듣는 감각이 보는 감각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0th Anniversary (1999-2009)

Apgujeong1-dong Catholic Church
10th Anniversary Photo Album

주님의
앞뜰에서
보는 신화
神話

압구정1동 성당 10년사 화보집

2010년 5월 발행

편 저 _ 압구정1동 성당 10년사 화보집 편찬위원회

편 집 _ (주)이엑스디 _ www.exd.co.kr

펴낸곳 _ 천주교 서울대교구 압구정1동 성당

주 소 _ (우)135-894.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07

전 화 _ 02-541-9240~1

팩 스 _ 02-541-9243

